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

일반사회교육전공

김희선

**2014**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 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 반 사 회 교 육 전 공 김 희 선

## 김 희 선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김성훈\_\_\_\_\_

심사위원                      김성훈\_\_\_\_\_

   김경은\_\_\_\_\_

   최민식\_\_\_\_\_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A. 학교폭력	
1. 학교폭력 개념.....	5
2. 학교폭력 유형.....	8
B. 생태학 발달 이론.....	15
C.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	19
1. 개인체계와 학교폭력.....	22
2. 미시체계와 학교폭력.....	24
3. 중간체계와 학교폭력.....	26
4. 외 체계와 학교폭력 .....	27
5. 거시체계와 학교폭력.....	28
D. 선행연구.....	28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기간 .....	37
B. 설문지 구성 및 측정도구.....	40
1. 설문지구성 .....	40
2. 측정도구 .....	41
가. 학교폭력 유발요인 실태 .....	41
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	44
C. 분석 방법 .....	45

IV. 연구결과 및 해석	46
A.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 실태	46
1. 학교폭력 유발요인 실태	46
2.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의 실태	47
가.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48
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	50
다.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51
B.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차이	53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차이	5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차이	55
C.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	56
1.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유형의 상관관계	56
2.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	59
D.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62
1.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62
가.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신체적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62
나.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68
다.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73
2.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83
가.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83
나.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87
다.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91
V. 결론 및 제언	98
참고문헌	104
부록 1	110
ABSTRACT	115

## 표 목 차

1.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조사 내용 추출 영역 (김규태, 2013, p. 34).....	22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39
2-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41
2-3.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조사내용 (김규태, 2013, p. 40).....	43
3-1. 학교폭력 유발 수준.....	47
3-2. 학교폭력 경험수준.....	48
3-3.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50
3-4.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51
3-5.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52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	53
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56
5-1.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 간 상관관계.....	58
5-2.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간 상관관계.....	61
6-1. 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가해)에 미치는 영향.....	64
6-2. 폭력 유발요인이 협박(가해)에 미치는 영향.....	66
6-3. 폭력 유발요인이 구타(가해)에 미치는 영향.....	67
6-4. 폭력 유발요인이 강제심부름(가해)에 미치는 영향.....	69
6-5. 폭력 유발요인이 놀람(가해)에 미치는 영향.....	71
6-6. 폭력 유발요인이 따돌림(가해)에 미치는 영향.....	72
6-7. 폭력 유발요인이 아이디도용(가해)에 미치는 영향.....	74
6-8.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시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76
6-9.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가해)에 미치는 영향.....	78
6-10.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80
6-11. 폭력 유발요인이 휴대폰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81
6-12. 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피해)에 미치는 영향.....	84
6-13. 폭력 유발요인이 협박(피해)에 미치는 영향.....	85

6-14. 폭력 유발요인이 구타(피해)에 미치는 영향.....	86
6-15. 폭력 유발요인이 강제심부름(피해)에 미치는 영향.....	88
6-16. 폭력 유발요인이 놀림(피해)에 미치는 영향.....	89
6-17. 폭력 유발요인이 따돌림(피해)에 미치는 영향.....	90
6-18. 폭력 유발요인이 아이디도용(피해)에 미치는 영향.....	92
6-19.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시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93
6-20.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	94
6-21.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96
6-22. 폭력 유발요인이 휴대폰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97



## 논 문 개 요

학교폭력은 과거 단순히 절도에 그친 범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인 범죄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폭력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유형에 관한 연구로 따로 연구되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하고, 학교폭력은 개인·학교·가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현되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유형별로 개인·학교·가정의 어떠한 측면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개인의 발달 심리적 특성·가정·학교조직 제도·지역사회 등 생태학적 체계와 관련이 있음이 파악하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학교폭력 유형별로 개인의 발달 심리적 특성·학교·가정의 영향력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인 미시적·거시적·외 체계·중간체계의 폭력유발요인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을 이용한 이유는 그가 아동발달과정이 개인의 발달 심리적 특성과 학교·가정·지역사회 및 제도·문화와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론을 제창하였고 이에 의할 때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분석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체계·외 체계·거시체계·시간체계 분류체계 중에서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 체계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이므로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외 체계 영역인 학교 교육 환경과 교육제도를 별도로 폭력 유발요인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체계를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 분류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와 환경을 미치는 거시체계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  $p<.01$ ,  $p<.001$ 에서 검증하였

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인 Duncan tes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유형의 영향력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발생시 학교폭력 유형별로 유발요인을 알 수 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해경험이 좀 더 많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공학교가 아닌 학교의 학생이 남녀공학의 학생보다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영(2007, p.302)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유발수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폭력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 부모가족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좀 더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이 학교폭력에 많이 관련이 되었다는 기존 연구(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이진숙, 2010)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교폭력 유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한 연구(곽영길, 2007; 김병찬, 2012; 정현주, 2011)와 일치한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이 가해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와 학업흥미가 낮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나타난 연구결과(박효정·정미경·김효원, 2009, p.34)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차이는 한 부모 가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리그비(Rigby)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의 학생이 가해경험이 많은 결과에 상응하여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의 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정현주, 2011). 즉 학교폭력은 학업

성적과 가정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유발에는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의 한 요인만이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학교생활·제도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한 부모 가족처럼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담지원, 멘토 등을 제도화하여 자녀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 유형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먼저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가해행동 중 협박행동이 폭력써클가입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미시체계의 좋지 않은 급우관계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피해행동 중 강제심부름 피해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5)연구에서 학생의 개인적·가정적 배경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생 교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애플데이와 같은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또래상담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물리적·신체적 폭력 행동(금품갈취, 협박, 구타)을 하는 학생은 개인체계(개인의 우월의식, 공부 못하는 경향)·미시체계(부정적인 학생과 교사 관계)·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비행행동)의 영향력이 높았다. 즉 학생의 개인적 발달 특성인 우월의식이 높을수록·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폭력써클가입 행동과 비행행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 이는 학교폭력행위로 볼 수 있는 돈·물건 빼기, 신체 상해 행위는 주요과목 이해도가 낮을수록·남자가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성별에 대한 인식·교사가 열정적이지 않을수록·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주형·정성수, 2012, p.9-10)와 비슷하다.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교우들 간 역할극하기, 또래상담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확충, 학생 자치를 통한 학교규칙 설립하기 등을 실천한다면 개인의 우월의식·교사와의 관계·학교규칙에 대한 인식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은 개인의 발달 특성·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가 많이 관련되어있으므로 학교문화 개선만으로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은 주로 같은 반 학생과의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이버 상에서 폭력의 피해학생에게 특별히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다. 따라서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또래상담제도 와 프로그램 개발 등 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예방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행위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학교폭력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체계의 요인들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각종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학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 아래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학생들의 가족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과 학교체계를 대상을 조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 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설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법을 실시하였다. 그렇다보니 개인마다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같은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유형에 대해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에서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준비한다. 학생은 학교체제 안에서 친구들과 교사 등과 상호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상황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친구·교사 등 상호관계가 학교폭력에 얼룩져서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 받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울타리 안에 경찰이 들어오는 학교지원경찰관(스쿨폴리스)제도 도입은 그 중 하나이다. 스쿨폴리스 같은 정부의 지침은 학교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과거 단순절도에 그친 청소년 범죄는 최근에는 방화·강간·강도·살인 등 흉악 범죄까지 넘나들어 성인 범죄화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가해 청소년들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행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흉포화 되면서 청소년 범죄자 검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율은 학교 폭력증가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 및 청소년 백서(1981~1999)를 검토해보면 학생범죄의 동기도 생활비·유희비·사행심·분노·유혹·허영심·가족불화 등으로 전체범죄 대 학생범죄의 비율이 약 8%~11%정도로 높아지며 다양화되고 있어 명백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폭력은 분석에 포함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고려해본다면 학교폭력의 통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김현수·김대유(2003)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일삼는 아이들은 장난으로 때리고· 장난으로 돈을 뺏으며·장난으로 신발을 숨겼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해행위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한다. 짓궂은 장난과 폭력, 왕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핑계로 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처벌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범으로 처벌된다(이재상, 2007, p.158). 여기서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은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법적으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법적·사회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2007, p.161).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범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이재상, 2007, p.333).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는 법규정을 조사하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해당하며, 단순한 법규범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아니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이재상, 2007, p.334). 특히 고의가 없었더라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은 과실범으로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실 치상죄가 이에 속한다(이재상, 2007, p.182). 즉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과실 치상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정원, 신론사, p.86). 물론 경미한 외상이나 단순한 놀림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형적·물리적·신체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정신적 수단인 경악 또는 공포심을 유발시켜 상대방에게 신경쇠약·정신장애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이정원, 신론사, p.65).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학생의 괴로움을 무시하고 단순한 놀이로서 생각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있으며,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행위로 피해학생이 신경쇠약 정도까지 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한 과실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서 법 규정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으므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형법은 제9조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와 제10조 제1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를 규정하여 책임 무능력자에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와 심신상실자가 포함하여 보고 있다(이재상, 2007, p.302).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 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회적 평가는 그대로 인정된다(이재상, 2007, p.70). 그래서 학교폭력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인 학생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만14세 이상으로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놀이나 장난이라는 것은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이는 괴롭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제도로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에 공포된 후 최근까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의와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는 온전한 이해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환경·학교환경·지역사회 등 각각이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은 하나의 요인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대책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으로 단순히 학교폭력 따른 가해학생의 폭력 유발요인중심의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생·가정·학교의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복잡한 폭력 유발 요인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자·피해자의 단편적 대안보다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생태학적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유발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기봉(2008, p.84)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하여 기본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행위가 개인적 특성과 생태적 환경은 관련이 있다. 둘째, 생태시스템 이론의 다양한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대인 상호관계·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사회 환경·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같이 여러 단계로서 구분 분석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사 내용 추출 영역을 생태학적으로 바라보아 개인체계는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특성들, 미시체계는 학생 개인이 갖는 친구, 교사, 학부모와의 직접적 경험, 중간

체계는 학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의 두 집단 이상의 관계와 영향, 외 체계는 학생 개인과는 관계되지 않지만 학생 개인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교육환경 또는 제도, 거시체계는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문화와 환경이라고 한 연구(김규태, 2013, p.34)도 있다. 셋째, 학생과 상화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야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고려할 때,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학생이 갖는 학교 가정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험,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간의 관계, 교육환경·제도, 사회적 문화와 환경의 어떤 측면이 학교폭력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태학 관점과 관련하여 브론펜브레너(1997)는 아동 발달 이론으로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체계·외 체계·거시체계 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과 관련하여 개인 발달적 특성, 학교 및 가정에서 경험과 영향력 등의 미시적이고 중간적 측면 즉,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 체계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대상 학생들은 모두 서울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 체계영역인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별도로 폭력 유발요인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유발요인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거시체계는 측정될 수 없다.

박주형·정성수(2012, p.15)는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개인적 발달과정·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었다.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 체계를 이용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 예상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가정·학교·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B. 연구문제

이처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유형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A. 학교폭력

#### 1.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의 개념정의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것은 먼저 폭력의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정의된다. 보편적으로 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공격행동과 폭력을 구분하는 것으로 공격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고 신체적·물리적 상해나 언어적 상해 모두를 포함된다. 이와 달리 폭력은 상처가 극심히 큰 경우로서 의도적으로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견해(L.Bekowiz, 1978)도 있다.

또 다른 폭력의 개념으로 상해는 상대방에 의하여 느껴지는 가벼운 통증에서부터 살인까지 광범위하다고 보아 타인을 신체적으로 행하는 직접적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 폭력이라고 정의한 것도 있다 (R.J.Gelles, 1979). 이처럼 폭력은 신체적인 상해를 가할 의도와 인식되는 부정적 행위를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폭력은 심리적인 폭력이 심각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지메의 경우 심리적인 피해가 신체적인 피해보다 더 많고,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1995년 이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김준호·이선애(2003, p.9), 고혜석(2006)은 학교폭력이란 말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며 경험하는 폭력이라고 봐야한다고 정의한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개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폭력의 개념은 그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인의 범죄의 폭력의 개념보다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

폭력이 결과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인데 이외에도 언어적·몸짓의 비언어적 형태의 폭력과 무기소지와 같은 폭력 전단계로 폭력행위 자체나 행위의 가능성 측면에서 폭력의 개념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박창득, 2003)을 볼 때 청소년의 폭력 개념은 물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인간의 내면정신이나 신체에 가해지는 상해 또는 사물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앞에서 본 폭력의 개념이 다양한 것처럼 학교폭력 개념도 폭력의 행위·폭력의 주체·폭력의 객체에 따라 그 범주를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 폭력의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범위를 피해자의 신분을 가해자보다 신분보다 넓게 포함하여 학교주변과 학교 내 모두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왕따 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행동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행하는 신체적·심리적인 폭력으로 남이 보

이 않는 경우에 반복하여 행사하는 것과 심한 공격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는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폭력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대 학교의 집단 패싸움, 학교 내 집단 패싸움 등의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는 신체적인 가해행위도 폭력개념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언어적 위협·따돌림·소지품은닉·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기물파손 등 행동과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자녀 안심운동 서울 협의회, 2003).

에스토(Astor)는 등하굣길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만을 폭력이라고 정의하였고, 멀린(Murline)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그 영향이 학생에게 미친다면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학교 행정가 또는 교사까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다면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교사의 폭력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했다(장희숙, 2004, p.260).

둘째 학교폭력 개념도 폭력의 행위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현대의 학교폭력은 폭력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절제 없이·죄의식 없이 감정이 치닫는 대로 폭력행위를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의 행위로는 기물파괴, 금품 갈취, 집단 패싸움, 과시용 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든 개의치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가해자가 일부 학교 부적응 학생들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까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은 만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가해자와 구별이 뚜렷하지 않는 면도 발생한다(육홍련, 2005).

폭력행위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학교를 가기를 싫어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게 된다. 폭력 가해자는 등하교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거나 흥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폭력이 아닌 불량서클과 연계되며 점차 조직적으로 변화되며, 조직 폭력단과 연결되어 조직 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육홍련, 2005).

이돈희 (1996)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오래 지속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의 범주를 피해자와 학교 안 뿐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폭력이라 정의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김준호·이선애(2003, p.9)의 연구처럼 학교폭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학교내외에서 경험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가해자는 학생과 학교주변 불량학생을 포함시키고 피해자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부모와 교사는 제외시켰다. 광의의 학교폭력으로 학교안과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 하였다. 왜냐 하면 피해는 물론 가해 실태를 파악하기 쉽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학교폭력 유형

김범수(2009, p.31)의 학교폭력 유형 분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 그리고 구조적 폭력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교폭력유형을 다음과 같이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세 가지 형태로 정의하였다.

언어·심리적 유형으로는 언어적 모욕(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인 별명 부르기, 헐뜯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나쁜 소문 퍼뜨리기와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으로 음란한 눈빛과 몸짓으로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헐뜯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신체·물리적 유형으로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인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과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돌 던지기,침 뱉기,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 등이 있다.

집단 따돌림 등은 고의적인 따돌림, 사이버 폭력인 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

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이다. 그리고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유형인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책상을 숨기는 것 등도 포함한다.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종단 적 연구(김준호·이선애, 2003, p.13)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 유형별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금품갈취), 괴롭힘(따돌림)피해경험, 모바일 폭력에 따른 남녀별 피해율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은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피해율이 높고, 여학생은 모바일 폭력 중에 문자메시지 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김준호·이선애(2000, p.102)에 의하면 학교 내 언어적 폭력은 위협·협박·욕설 등에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고 있는 형태이고, 물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며 이는 청소년기 신체적 에너지와 반항적인 자아의 정체의식결여와 집단에의 소속감을 맛보려는 욕구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다면 이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금품갈취도 학교폭력 유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광의의 폭력 개념으로 신체적 폭력, 언어 및 심리적 폭력으로 구별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치안연구소, 1996;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5). 최근에는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시판, 게임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 및 휴대폰과 관련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다(김준호·이선애, 2003, p.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유형을 알아보고자, 학교폭력 경험에 따른 유형을 학교폭력 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하였다(김선애 2003, p.5; 김준호, 1997; 김중호, 2003).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광의의 정의를 받아들이 신체적·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폭력행위의 범위를 확장시켜 협박과 괴롭힘과 같은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을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 이용도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 공간 및 휴대폰과 관련된 폭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폭력유형실태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 가. 물리적·신체적 폭력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금품갈취, 피해협박, 구타의 개념을 포함한다.

금품갈취는 자신보다 약한 학생이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로 약한 학생을 위협한 후 빼앗는 행위이다. 이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금품갈취는 갈취하는 자가 지적인면·경제적인 면에서나 열등의식을 갖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고 교사나 급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돈과 물건 등을 자신보다 힘은 약한 학생들에게 빼앗는 행위이다. 즉, 이러한 행위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신체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짓누름으로써 가진 것을 빼앗고 여기에서 일종의 쾌감과 만족감을 누리려는 부적응 행위이며, 또한 상대방을 결핍시키고 자신을 보충시켜 심리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금품갈취의 형태로는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빌리는 행위, 입고 있는 의류, 가방 등 빼앗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교통카드, 시계, 핸드폰, PMP 등 개인물품 빼앗는 행위, 빵, 음료수 등을 구입해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길을 가다 운 나쁘게 한 두 차례 당하는 수도 있지만,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발생장소는 학교(외진 곳, 옥상 등) 및 학원, 유흥업소 주변이고 주로 벌어지는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나 늦은 저녁이다(박동호, 2011). 즉, 금품갈취는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 즉, 교실 안, 학교 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며 학원 전자오락실, PC방과 길거리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볼 수 있다(육홍련, 2005).

학교폭력의 주된 가해자나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들이다. 주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라는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폭력 행위 시 가해 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경우 3-4명 집단인 형태가 많으며, 남학생의 경우 단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단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고도 죄의식, 죄책감이 거의 없거나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김종기, 1998). 금품갈취는 형법상 공갈죄로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금품갈취가 폭력범죄의 주요한 형태로 간주되는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커질 경우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금품갈취 가해자들은 기성 폭력조직을 모방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복행위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써클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에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박동호, 2011).

협박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적, 비의도적 언어행위를 통해 듣는 사람이 압도되거나 강요되는 상황에 처함으로 심리적 고통이 야기되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일상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 이외에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폭력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협박으로 피해학생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대인 기피증 같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폭언적인 언어의 분위기와 언어의 연상 작용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이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학생이 집단을 구성해서 폭언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급생이나 후배 돈을 빼앗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박성수, 1997).

협박행위는 언어적 폭력과 관련이 있다. 언어적 폭력의 원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문화의 영향,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적이고 폭력적 언어 및 행동이 많은 경우 자녀들이 언어폭력 등을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들이 다시 주체가 되어 언어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래관계에서는 폭력적 게임, 욕을 섞어서 이야기 하는 등의 언어습관, 공감능력 부족으로 자신이 폭력적 언어를 이야기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지 인식하기 어려워 언어적 폭력이 일어나며 이러한 언어폭력은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나타나 폭력적인 또래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박성수, 1997).

마지막 구타는 폭행행위에 해당하는데, 형법에서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학자들에 따라 범위를 대상과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폭행을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묻지 않고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것으로 내란죄가 그 예에 속한다. 둘째는 폭행을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는 폭행을 고의로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폭행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어서 신체에 대한 직접·간접의 모든 유형력의 행사이면 모두 폭행



으로 해당된다는 견해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상해와 구별된다고 본다. 이에 의할 때 폭행을 하여 신체를 상하게 하면 폭행치사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먹살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는 것, 마취약을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해당한다(박동호, 2011).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을 신체폭력이라고 한다. 발 걸기, 때리기, 밀기, 침 뱉기, 차기, 물건 망가뜨리기, 찌르기, 가혹행위, 등이 포함되는 일체의 행위가 신체폭력에 포함된다. 구타나 신체적인 폭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파악된다(권이중, 1998).

학교폭력의 형태는 대부분의 또래나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지만 교사의 체벌 또한 학교폭력을 유발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폭행은 단순한 부상의 정도를 넘어 살인에게 까지 이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박동호, 2011).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1년에 발표한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폭력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스로에게 폭력사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가해자를 지나치게 엄격히 처벌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더욱 폭력적이 될 수 있다(이민희, 1988).

## 나. 괴롭힘

괴롭힘은 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제심부름은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상황으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심리적, 물리적 억압이나 강제를 통하여 지배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괴롭힘을 의미한다. 이는 욕설 등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경우와 달리 심리적인 억압이나 강제로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심부름의 발현형태로는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것과, 위협을 하여 숙제를 시키거나, 시험 볼 때 위협을 하여 답안지를 보여주게 하는 등이 있다.



놀리기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지속성을 갖고 구체적인 목적도 없이 재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에게는 심리적으로 더욱 잔혹하다. 구체적인 발현 형태는 놀리기, 건드리기, 시험 답안 보여주기, 불량서클 가입 요구, 숙제나 과제를 대신 해주기, 가방 대신 들어주기, 강제 심부름하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심적 또는 육체적 성가심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창호, 2003). 놀리기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성적, 집, 형편,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창호, 2003).

집단따돌림은 한 집단 내에서 둘 이상의 학생이 한명의 한생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타, 폭행, 소외, 심리적 배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춘재·곽금주, 1999). 이는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모함하기, 대화를 거부하기, 하는 일마다 시비걸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려는 다른 집단구성원에게는 따돌림의 대상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위해하기, 바보 만들기,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집단 따돌림을 잘 당하는 학생은 대부분이 신체외모나 목소리가 특이한 학생, 잘 씻지 않거나 복장이 지저분한 학생,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 마마보이, 마마 걸,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아이 또는 선생님이 편애하는 학생, 반에서 튀는 학생, 잘난 척 하며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학생,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가만히 있으며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이 또는 부끄럼을 많이 타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학생, 거짓말, 고자질을 잘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학생, 옷차림, 유행어, 연예인 동경 등과 같은 또래집단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홍현주, 2005). 이 같은 원인은 경쟁적인 질투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또래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유능감이 아닌 열등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질투심과 열등감은 자기중심적 경향으로 또래 수용능력을 약화시키며 또래의 고통에 둔감해지며 비인간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최근에는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각한 상처를 꿔뚫다는 생각을 증폭시키게 한다.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폭력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적으며 이는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과거에 존재했지만 그 정도나 대상범위가 크지 않아 사회문제로 인식될 정도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정도와 대상범위가 커지

면서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곽금주, 2002).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이지메 현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지메라고 하면 자 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로 하여금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다. 이런 폭력유형은 집단 따돌림, 놀림, 권닝 강요, 숙제 및 심부름시키기 등을 통해 발현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죄의식을 합리화 하고 타인에게 투사시키는 집단 방어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창호, 2003).

#### 다.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 폭력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사이버 범죄로서 고의적으로, 반복적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용어가 통용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확정된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범죄는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네이트 온, 게임 등의 채팅 또는 쪽지,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위키사전, 2013).

사이버모욕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의하면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학교폭력영역으로 도출 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훔치는 행위인 아이디 도용피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인터넷 게시판 폭력, 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금전적 속임수와 같은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 피해, 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협박이나 폭행과 관련된 것을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 휴대폰 음성·문자메시지와 관련된 휴대폰 폭력 피해 유형 등이 있다(김선애, 2003, p.5 ).

## B. 생태학 발달 이론

생태체계관점은 생태학과 일반체계이론이 결합된 관점이다.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생활상태 혹은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거나 혹은 개인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을 생태라고 말하며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은 생태학(ecology)으로 생물학의 한 분과이다.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환경의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키며, 생명을 지지하는 환경의 속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유기체들이 어떻게 환경을 활용하며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유기체와 환경 간의 적응적합성과 유기체의 역동적 균형이 유지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버트란피(Bertalanffy)는 일반체계이론은 생물학자로 1940년대에 처음 제시하여 1960년대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론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속성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속성을 이해하고, 복잡한 체계의 관계 속성 또는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현실을 관찰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며 세포부터 사회,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연합체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체계이론이라고 한다.

즉 생태체계관점은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이고 일반체계이론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장점과 특징을 인간발달연구에 도입한 것이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고, 위의 세 가지 개념들이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적용된 것이 생활모델이다. 생태체계관점

은 일반체계이론(체계적 관점)과 생태학 이론(생태적 관점)이 결합된 것이다. 생태체계관점은 일반체계이론의 주요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생태체계관점은 유기체들이 어떻게 상호적응 상태를 이루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 적응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며, 인간과 인간의 주변환경간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을 설명한다.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발달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그의 이론을 생태학적 이론 혹은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한다. 생태체계모델(eco-system model)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생태체계관점이 사회복지실천에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생태학 발전과정에 도출된 관점이다.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이고 일반체계이론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장점과 특징을 인간발달연구에 도입한 것이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다. 생태체계관점은 일반체계이론(체계적 관점)과 생태학 이론(생태적 관점)이 결합된 것이다. 생태체계관점은 일반체계이론의 주요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생태체계관점은 유기체들이 어떻게 상호적응 상태를 이루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 적응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며, 인간과 인간의 주변환경간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을 설명한다.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발달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그의 이론을 생태학적 이론 혹은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한다(이선영, 2004).

생태체계적은 1970년 도입된 생태학이론으로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적응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사업의 이론적 준거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태학의 개념과 일반체계이론은 생태 체계적 관점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방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생태학은 환경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환경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승재, 1990).

유전적 및 생물학적 요인은 다른 환경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생태체계관점의 기본가정이다.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며, 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체계, 즉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며 적합성은 적응적인 개인과 지지적

인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상호적인 개인-환경과정이다. 개인이 환경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의미는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상황 속에서 개인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며 유능해지려고 노력한다. 오랜 기간 상호작용한 산물로 성격은 개인과 환경 간에 생활경험에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생활상 문제는 전체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과거 사회복지학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왔다. 사회체계속에서 인간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사회 환경에게만 영향만을 연구하거나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생태체계관점이 설명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의 행동과 이해에 대한 생태체계접근은 사회과학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곧 개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원인과 결과만에 초점을 두는 단선적인 견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박명금, 2006).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체계에 대한 생태체계관점의 기본적인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체계와 그 영향을 통해 인간행동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체계관점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내적요인들과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 '환경속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명숙, 2000, p.96).

생태체계접근은 인간을 환경과의 독립된 유기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간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으로 보고 전체 체계 내에서 검증하려는 접근을 의미한다(석말숙, 2004, p.238). 즉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태체계이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박명숙, 1999, p.134).

브론펜 브레너(1979)는 인간발달은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거주하는 환경과의 성장과정에서 일생동안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m Development)을 설명했다. 이 이론은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간을 이해하기 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결과로 보았다. 즉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으로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상호작용연구에서 탈 맥락적 관점이 아닌 맥락내의 인간발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문수경, 2004). 브론펜 브레너는 동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구조 모형을 구성하는 겹겹의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생태학적 환경체계 규정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환경을 개

넘화 하여 인간을 둘러싼 환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체계를 이루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는 곧 인간 생애는 생태학적 체계나 환경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기 역동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생애를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개인과 연결된 환경과 이 환경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하여 단순히 개인에게 환경이 개인에게 서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과 환경끼리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간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인간이 처해있는 갈등 과 상황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호작용과의 상호연계성을 규명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는 것이다(홍정미, 2008).

브론펜브루너(Bronfenbrenner)는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네 개의 체계로 규정하였으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로 구분하였다 (우혜선, 2007) 즉 브론펜브루너(1979)는 생태학(ecology)이란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개인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을 의미한다. 브론펜브루너는 그의 저서, 「인간 발달의 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1979)에서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한 방식들이 이론에서 다섯 가지의 환경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 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그리고 시간 체계(chronosystem)가 그것이다. 이들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짜 맞춘 듯 들어 있는 한 세트의 러시아 인형처럼 좀 더 근접한 것에서부터 좀 더 광역의 것까지 이 다섯 가지의 체계는 서로 다른 것에 담겨져 있다. 그는 다섯 가지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시체계(Micr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예를 들면,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으로 부모, 친구, 교사,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가족구조, 부적절한 부모역할(아동의 발달욕구에 무지하거나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 권위주의적 강압적 양육태도)등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미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과 거부, 통제와 자율의 허용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정신과적인 장애가 나타난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



경들 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진다. 예로서, 아동의 경우는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이다.

외 체계(ex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발달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간접적이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육자에 의해서 그 영향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소는 무척 다양하며 부모의 친구, 이웃, 고용주, 오락시설, 지원체계 등이 될 수 있다.

거시체계(macrosystem)는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 외 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consistencies)으로서 하위문화 수준이나 문화전반의 수준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서 가장 먼 사회적 맥락으로 사회의 태도, 관습, 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아동에게 장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소로는 문화적 사회적 제약, 정치적 격변, 만성적 가난, 가족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손덕순·이홍직, 2006, p.183)

### C.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급 또는 학교 수준에서 적절한 예방과 사후대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요인을 연구한 학자들은 개인적 요인, 환경적요인,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등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도기봉, 2007a; 이문자, 2003). 이는 생태 체계적 관점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가족, 학교, 이웃 환경의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비행중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연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태 체계적 관점이 개인과 환경이 각각 개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사이의 상호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발달과정과 환경의 요구간의 더 나은 일치를 이루려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폭력의 특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과 개인적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도기봉, 2008, p.82). 따라서 가해자 학생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은 학생의 개인특성과 학교의 조직적 환경과 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들인 가정과 지역사회 측면들과 더 나아가 학생의 폭력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과 상황까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교폭력 연구에 유용하다.

첫째 브론펜브레너(1979)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아동에 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인간발달이 유전적 요소, 가족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 같은 요인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간발달에 대해 생태적 접근을 취하면서 체계이론을 확대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 대인 상호관계,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같은 생태시스템 이론이 다양한 요인들은 여러 단계로서 구분·분석할 수 있다. 즉 유기체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성장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발달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장 먼 것에 이르기까지 네 개의 구조체계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시간체계를 추가하였다(한재원, 2011). <표1>처럼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개인의 유전적 요소인 학생 개인이 지니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미시체계인 학생 개인이 갖는 친구, 교사 학부모와의 직접적 경험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간체계는 학생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집단 이상의 관계 요인들을 구분하였고, 외 체계는 학교환경, 거시체계는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같이 여러 단계로 구분 분석하였다. 즉, 학생 개인의 가족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 같은 요인들과 관련시켜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단계로 구분 분석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



서 학교폭력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의 틀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둘째 브론펜브루너(1979)의 이론은 인간발달을 개인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및 제도와 문화와의 관계성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의 조직적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들인 가정과 지역사회 면과 정책 환경과 상황으로 학생의 폭력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까지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학생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효과와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환경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김규태, 2013, p.36). 또한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문제의 주요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보았다(Bronfenbrenner, 1979). 특히 브론펜브루너는 생태학적 발달이론에서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격특성 뿐 아니라 하위체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이에 따른 원인과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론에 따르면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인 네 가지의 체계가 상호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미시체계는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하는 활동과의 상호작용으로 부모, 형제, 학교 또래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준다. 중간체계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또래집단 의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준다. 외 체계는 청소년이 청소년 성격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부모의 학교 참여, 전문가 상담 등과 같이 다른 체제로부터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이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외 체계와 어떠한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의 틀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lt;표 1&gt;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조사 내용 추출 영역

체계(system) 이름	내용과 예시
개인(individual)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들(예: 학생의 공격성, 자부심 등)
미시체계(microsystem)	학생 개인이 갖는 친구, 교사, 학부모와의 직접적 경험(예: 교실내의 교우관계, 가정의 심리적·사회적 환경 등)
중간체계(mesosystem)	학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 체계의 두 집단 이상의 관계와 영향(예: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의 교우관계 인지, 교내외 비행학생과의 관계 등)
외체계(exosystem)	학생 개인과는 관계되지 않지만 학생 개인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교육환경 또는 제도(예: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신고전화 등)
거시체계(macrosystem)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문화와 환경(예: 전통적 윤리관의 붕괴, 폭력적 대중문화 등)

자료: 김규태 (2013, p.3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파주: 양서원.

## 1. 개인체계와 학교폭력

개인체계와 학교폭력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학생개인의 성별과 심리적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상호관계 연구를 위해 한국 청소년개발 원이 발표 한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 조사 (1995)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인 싸움에 관여될 확률이 3배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질서와 학교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자기중심적이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우울감과 열등감이 강하다고 나타났다(문용린·이승수 2010 ; 박효정·정미경·김효원 2009, p.40; 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보다 감정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공감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염영미, 2012; 장맹배, 2011). 박효정·정미경·김효원(2009, p.33)에 의하면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취도와 학업흥미가 낮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의 영향으로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친

구와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김병찬, 2012, p.43 ; 문용린·이승수, 2010; 박동호, 2011; 이진숙, 2010). 또한 가해자는 개인적 특성으로 스스로 신체의 힘이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찬, 2012, p.44 ; 박동호, 2011; 이은정, 2011; 정현주, 2011). 이런 성향은 가해학생은 자기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한다.

청소년이나 남자 아동의 경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일반아동에 비해 신체적으로 크고 힘이 센 편이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보통의 또래보다 비슷한 정도로 인기가 있거나 약간 인기가 더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이르게 되면 평균이하의 인기를 또래에 비해 낮다고 본다(김선형, 2005). 반사회적이며 품행장애 성격이 강한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성인범죄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 같은 범죄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피해학생들이 안정감이 없고 불안해하며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말이 없는 편이 전형적인 특징이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흔히 위축되거나 우는 등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은 편에 속하며 자신이 속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흔히 바보스럽고, 부끄러우며,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육홍렬, 2005).

학교폭력에 오랜 시간동안 시달린 피해학생들은 외톨이로 학교에서 지내기가 쉽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이나 행동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공격해도 무시하고 또한 공격해도 마땅하고 합리화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편으로는 보복당할 염려 없이 또 다시 공격하게 만들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나 남자 아동의 경우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체력적으로 약하면서도 이런 특성이나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런 점이 또래집단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한 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이 경우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 불안, 불안정감 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김옥렬, 2006).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정서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적 요인에서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은 신체적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끼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

런 불안감은 자기의식의 출현으로 독립욕구가 강해지게 되는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주은희, 2002).

이러한 정서불안은 반항적, 파괴적,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서불안 에 영향을 받아서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표출방법의 하나로 폭력행위를 한다(이금주 · 원명희, 200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열등감과 우울성향과 화를 잘 내는 성향, 잘난척하는 성향, 공부를 못하는 성향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체계라고 볼 수 있다.

## 2. 미시체계와 학교폭력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은 학교폭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김규태(2013, p.36)에 의하면 학생이 속한 생활공간에서 교실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양육태도, 가정환경 등이 미시체계와 관련을 갖는다. 학생 개인이 속한 생활공간에서 갖거나 경험하는 교실내의 교우관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정의 심리적 · 사회적 환경 등 미시체계와 관련을 갖는다. 가정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실업상태에 오랫동안 있었던 남학생은 고용상태에 있는 남학생들에 비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곽영길, 2007; 김병찬, 2012, p.44 ; 정현주, 2011). 가정이 최초로 갖게 되는 가정환경요인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청소년의 성격은 성장 발달과정 가치관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윤경아, 2003). 부모의 일관성 없고 무관심과 모순되는 훈육으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과 불안은 자녀와 대화가 적은 가정의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권이중, 1996).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상당수는 부부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로 이는 자녀 폭력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으로 폭력의 학습장이 가정이 도리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조춘범, 2005). 특히 사회가 급변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많고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상황으로 인해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핵가족 제도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

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쉽게 빠지는 요인이 된다(이금주, 2002). 결손가정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 범죄성향 등의 가족요인으로 학생들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많고 결손가족일수록 아동을 부모가 통제할 때 힘에 의존하거나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또한 부모가 범죄성향을 많이 가질수록 학교폭력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 관계 및 기능이 보다 순기능적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성옥, 2001).

청소년과 아동의 위험집단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환경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육관습, 감독부족, 과도하게 허용 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양육방식, 부모의 따뜻함 결여 등은 주로 남자 청소년의 난폭한 행동과 상관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우 사회적 환경 가정환경의 문제에 예민한 영향을 받는다. 가정환경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에게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원인이나 환경적 문제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경집, 2005, p.446). 부모의 양육태도의 아동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은 4단계의 상호작용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1단계는 아동에게 부모가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2단계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소리 지르기, 신경질 등이라고 한다. 3단계는 부모의 강압적 요구를 중단하면 아동역시 마지막으로 부정적 반응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흐름의 기초하여 부정적 반응을 가진 부모의 영향으로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생활 경험이라고 본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의 자녀가 많고, 공격적 행동은 관찰과 강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체벌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나타났으며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등을 갖는다(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이진숙, 2010).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과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냈다(문용린·이승수, 2010; 유리향, 2012; 윤영준, 2012).

### 3. 중간체계와 학교폭력

김규식(2013)은 학교폭력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 개인과 관련된 두집단 이상의 미시 체계는 중간체계와 연관되며 그 예로 학부모의 교우관계 인지,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비행학생과의 관계 등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관계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학교의 교사 또는 학교관계자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정도가 심하여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부모와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학교관계자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교정책, 교사에 대한 인식 등에 비협조적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학부모의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은 낮고, 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약화 된다고 보인다. 학부모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생활과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사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본다(김은영, 2008, p.88; 도기봉, 2007a, p.174; 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또한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관계와 관련하여 1년 동안 또래로부터 배척받은 피해학생은 2년 동안 또래로부터 배척받은 아동에 비해서 더 공격적이며 사회적 기술 차원에서 능숙함이 떨어 졌다. 이후의 초등학교 시절 또래로부터 배척받은 경험은 추적 조사에서 보듯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행동을 예언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럿이 있을 때 혼자보다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았다(김준호·이선애, 2000). 따라서 이들의 반사회적 문화는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주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행 청소년 혹은 일탈 청소년들의 교류는 극단적으로 폭력양상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학교폭력이 조직폭력과의 연관성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보인다고 본다(박동호, 2011). 이처럼 학교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의 관계는 상호관계가 낮고 학교폭력 연관된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잘 알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단순히 학교체제가 여학생, 남학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고 결과 나왔다 (김미영, 2007, p.306).

#### 4. 외 체계와 학교폭력

외 체계에 관한 연구는 교육환경 또는 제도와 관련되고 지역사회범죄율과 학교폭력간에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 범죄율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및 학군이 비교적 열악한 조건일 경우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이 학교나 지역사회 풍토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은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폭력허용적인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김경집, 2005 p.445). 학교폭력은 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한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일 수밖에 없어서 정서적인 교육이나 생활 교육이 제한적이다(주은희, 2002). 심리사회적 환경과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과 구분되는 학교환경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유지보수,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교내 환경의 안정성이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라고 보았다(김은영, 2008, p.79). 학교폭력은 가장 예시적인 형태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지각에 의존하는 일부 학교의 문화나 풍토역시 제한점은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지역사회 역시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둡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와 유해환경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박동호, 2011).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거주하는 학생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의 학교현실이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학교폭력에 대해 안전한 환경이 아니고,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퇴폐업소가 학교의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나타났다 (김병찬, 2012, p.42 ; 도기봉, 2007a, p.181; 박동호, 2011).

## 5. 거시체계와 학교폭력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계된 학생 개인은 다른 체계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2)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퇴폐적인 향락 문화와 인터넷상의 폭력적인 게임 폭력적인 대중매체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는 폭력적인 대중매체를 통하여 무형적 유형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다고 보았다. 또한 거시적체계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윤리관의 붕괴는 학교폭력에 영향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김병찬, 2012, p.43 ; 안광복, 2012). 성적위주학교생활은 학교평가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하고 학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러한 감정이 비합리적인 방법인 학교폭력으로 해소하려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단순히 충동적이고 행동하게 되어 가해자가 되는 한 요인이 된다(주은희, 2002). 사회 환경 요인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규범이 약화되고 상대적 박탈감과 자본주의적 배금주의에 의한 인간가치의 경쇠와 사회의 막연한 폭력 문화가 학교폭력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주은희, 2002; 이금주, 2002; 윤경아, 2001). 또한 김규태(2013, p.33)는 싸우면서 애들은 큰다는 사회적 인식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사회전체의 무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력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D. 선행연구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폭력 유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다



음으로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 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특히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인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며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와 학교폭력 유형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관련된 인식에 관한 연구가 많다.

정종진(2011)에 의하면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생태학적 이론에서 접근하였는데 특히 학교폭력 다중계층구조 경로모형을 통해 접근하였다. 학교폭력을 학교의 자산 과 학교에 있는 사람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해치고자 하는 의도 있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결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요인은 성별, 신장과 체격, 불안과 우울 및 자존감 등이고, 가정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불화,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등 이고 학교위험요인은 교사와 학교의 폭력에 대한 관심 부족,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반응, 폭력 가해 또래집단 접촉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김규태(2013, p.31)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브론펜브루너의 생태학적 모형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이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외 체계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개인 9문항, 미시체계 12문항, 중간체계 8문항, 외 체계 9문항, 거시체계 10문항 총 48문항으로 학교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즉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생태학적 이론에서 접근하였는데 교사와 학부모는 외, 거시체계 예로 폭력서클 가입(곽영길, 2007; 김연화, 2009), 일진과의 친밀성 등과 같은 체계가 학교폭력 유발원인이라고 인식하였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성향, 열등감과 우울 성향(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화를 잘 내는 성향(엄영미, 2011; 장맹배, 2011), 잘난 척 하는 학생(박동호, 2011; 이은경, 2011; 정현주, 2011)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개인과 미시체계가 학교폭력 유발원인이라고 보고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 관한 인식이라고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 과 같은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 대상과 가해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갖는다.

박주형·정성수(2012, p.7)에 의하면 150개교 중학교 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6,90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적인 협박이나 모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따돌림, 돈이나 물건 빼는 일, 신체적 상해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1997)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구타 35%, 금품 피해 28%가 가장 많고 협박 20% 순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이 중 고등학생이고 또한 학교폭력을 금품갈취와 폭행 협박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상담 자료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지녔다. 또한 연구는 가해 집단을 넓게 포함시켜 교사, 학부모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였다.

김선애(2003, p.12)에 의하면 2001년과 2002년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은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 폭력 세 가지 유형 중 2001년도에는 괴롭힘(12.7%), 사이버폭력(12.1%), 신체적폭력(남7.9%) 순으로 나타났고, 2002년은 괴롭힘 12.4%, 물리적·신체적 폭력 10.5%,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 폭력 15.9%로 가해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2012년 피해율 증가는 금품갈취(9.5%→11.0%), 협박(11.7%→14.8%), 구타(11.9%→17.4%), 괴롭힘은 강제심부름(11.4%→11.7%), 놀림(12.1%→14.0%), 따돌림(4.7%→5.9%), 사이버 및 폭력(아이디도용피해 20.2%→24.4%), 인터넷 게시판 폭력(8.2%→7.8%), 인터넷게임관련 사기피해(8.5%→11.7%),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3.6%→4.1%), 휴대폰 폭력 피해(2.6%→4.1%)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2년이 2001년에 비해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이 사이버 폭력보다 변화의 폭이 작았으며 아이디 도용 피해와 휴대폰 피해의 증가율은 두드러진다고 보였다.

본 연구는 김선애(2003, p.10)에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폭력 유형조사를 수정 보완하여 본연구의 학교폭력 유형 조사에 관한 설문에 이용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 개발원이 발표 한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 조사(1995)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인 싸움에 관여될 확률이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남학생이 학교폭력 유형 중에 물리적·신체적 폭력에 연관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로 학교폭력 경험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미영(2007, p.304)연구에서는 남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 이는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등의 학교유형이 학교폭력의 경험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성옥(2001)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 범죄성향 등의 가족요인으로 학생들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많고 결손가족일수록 아동을 부모가 통제할 때 힘에 의존하거나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또한 부모가 범죄성향을 많이 가질수록 학교폭력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 관계 및 기능이 보다 순기능적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과 편부모 가족은 학교폭력의 경험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장대(1998)는 부모님이 실업상태에 오랫동안 있었던 남학생은 고용상태에 있는 남학생들에 비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박효정·정미경·김효원(2009, p.40)에 의하면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와 학업흥미가 낮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의 영향으로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친구와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학교폭력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았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폭력의 경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주은희(2002)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감정이 비합리적인 방법인 학교폭력으로 풀게 되고 학교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단순히 충동적이고 행동하게 되어 가해자가 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학교폭력의 경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다.

넷째,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가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 관한 각각의 연구만 진행되었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 상관관계를 측정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단 박주형·정성수(2012, p.7) 연구에 의하면 학생이 판단하는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자료로 학교폭력 요인을 개인과 가정 학교로 보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과 학교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육 종단연구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이 본인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이 아닌 학교 내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었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 간접적인 경험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체계와 미시적 체계에 관한 연구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생태학적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단 대부분의 연구는 생태학적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이고, 생태학적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가해 및 피해행동 유형에 미치는 연구는 없지만 박주형·정성수(2012, p.5) 연구는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로 보고 학교폭력 유형을 학생이 판단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학교폭력 발생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을 돈·물건 빼앗는 일, 신체상해, 따돌리기, 언어폭력 의로 나누고 이에 관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돈·물건 빼기 학교폭력 유형은 성별,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학교규칙에 대한 명료화 및 공정성 인식,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무가 영향을 가졌고, 신체상해의 경우 성별이 남자인 경우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성지도에 대한 학교만족도, 학교안전폭력예방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따돌리기는 주요과목이해정도, 한 부모가정, 교사학생 관계, 학생의 교사에 대한인식,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성지도에 대한 학교만족도, 학교안전폭력예방교육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언어폭력은 남자, 한 부모가정, 교사학생 관계,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성지도에 대한 학교만족도, 학교 안전폭력 예방교육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 유형에 끼치는 영향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볼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되었지만 브론펜브루너 생태학적 관점은 특히나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이 성격특성과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는 이론으로 청소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이다. 다른 이론들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단편적 요인만을 찾았지만 생태학적 이론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관련 체계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로 김규태(2013, p.31) 연구에 의한 생태학적 학교폭력 유발 요인척도를 이용하여 학교폭력 유발

수준이 명확히 들어 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하였고 또한 본 연구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분류체계 중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 체계만을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을 서울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로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 체계영역인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별도로 폭력 유발요인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체계를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 분류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와 환경을 미치는 거시체계·시간체계 또한 제외시켰다. 따라서 학교폭력 유발 수준인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열등감과 우울, 우월의식, 화를 잘냄, 잘난 척 성향, 성별편견), 미시체계(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자녀무관심, 급우관계, 교사관계, 부부싸움),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부모교사관계, 비행행동, 대중매체영향, 자녀급우관계)와 학교폭력 관계가 본 연구에서 명확히 들어 날 것이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하여 개인의 발달 심리적 특성, 가정, 학교조직, 제도와 지역사회 등 생태학적 체계와 관련이 있음이 파악하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학교폭력 유형별로 개인의 발달 심리적 특성·학교·가정의 영향력에 따른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예방책과 감소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은 김선애(2003, p.8)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형으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휴대폰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하고 구분되는 각각의 유형은 물리적·신체적 폭력 구분에는 금품갈취, 협박, 구타 로 구분하고, 괴롭힘은 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 이고 사이버폭력은 아이디 도용 피해,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 휴대폰 폭력 피해 등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교외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학교외부에 발생하는 폭력을 제외함으로써 학교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만을 조사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이버 폭력까지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 경험수준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생활만족도, 공부 못하는 경향수준,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사후검증을 통해서 높은



유의성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될 것이며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개선과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개인적 발달과정, 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 가정을 위해 제한한 김규태(2013, p.40)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수정하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은 김선애(2003, p.5) 연구의 세부유형 수정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한다. 박주형·정성수(2012, p.5)의 선행연구에서 한국교육종단연구가 학교폭력의 요인이 가정이 아닌 학교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유발 요인 돈·물건 빼기, 신체상해, 따돌리기, 언어폭력으론 나뉘었으나 본 연구는 간접경험까지 포함시킨 종단 연구와 달리 표본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제한하고 학교폭력 유형도 세부유형으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금품갈취, 협박, 구타)과 괴롭힘(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 휴대폰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아이디도용, 게시판폭력, 게임사기, 게임폭력, 휴대폰폭력)으로 구분하여 다양화 하였고 박주형·정성수(2012, p.5)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변수로 나누어 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변수의 내용은 주요과목이해정도, 가계소득, 급식비 지원여부,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업지원, 교사학생 관계,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인식,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성지도에 대한 학교만족도, 학교안전폭력 예방교육을 설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보다 학교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가 박주형·정성수(2012, p.11)의 연구에서보다 그 관계가 명확히 들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김규태(2013, p.40)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인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열등감과 우울, 우월의식, 화를 잘냄, 잘난 척 성향, 성별편견), 미시체계(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자녀무관심, 급우관계, 교사관계, 부부싸움),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부모교사관계, 비행행동, 대중매체영향, 자녀급우관계) 도출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와의 상관관계가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는 기존의 선행연구로 박주형·정성수(2012, p.15)연구에서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한 인식 조사결과와 같은 결과로 폭력써클 해체와 학생교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또래상담가 등과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음을 가설로 설정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으로 각각을 나누고 행동유형도 김선애(2003, p.5 )연구에서 사용한 세부유형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유발요인도 생태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김규태(2013, p.40)의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박주형·정성수(2012, p.12)연구를 통해 가설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의 중단연구에서는 학교폭력유형 사용한 척도로 가해학생 중심의 돈 빼기, 구타, 따돌리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영역에 대입시켜 살펴보면 물리적·신체적 폭력(금품갈취, 구타, 협박), 따돌리기는 본 연구에서 괴롭힘(따돌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되고 다양한 세부유형으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금품갈취, 협박, 구타)과 괴롭힘(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 휴대폰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아이디도용, 게시판폭력, 게임사기, 게임폭력, 휴대폰폭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박주형·정성수(2012, p.5)의 한국교육의 중단연구에서는 폭력 유발 요인을 주요과목이해정도(개인체계), 가계소득,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교사학생관계(미시체계), 학교규칙대한인식(중간체계) 인데 반해 본 연구는 기존의 김규태(2013, p.40)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인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열등감과 우울, 우월의식, 화를 잘냄, 잘난 척 성향, 성별편견), 미시체계(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자녀무관심, 급우관계, 교사관계, 부부싸움),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부모교사관계, 비행행동, 대중매체영향, 자녀급우관계) 도출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즉 물리적·신체적 폭력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발달 특성인 우월의식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폭력 써클가입 행동과 비행행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르면 물리적·신체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에 대한 우월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상담가 를 통한 치료 등 과 교사와의 관계개선 및 비행행동 감소를 위해서 교사의 노력 등 과 폭력써클 해체와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다음 괴롭힘은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폭력 씨클가입 할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르면 괴롭힘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실 등과 폭력씨클 해체와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다음 사이버상 폭력행동은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급우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폭력 씨클가입 할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실 등과 폭력씨클 해체, 급우관계를 위해서 또래 상담가 등과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또래상담사 제도 도입 등의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박주형·정성수(2012, p.14)의 한국교육의 종단연구 분석은 학교폭력 인식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므로 학생 폭력 실태가 아닌 민감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를 함께 분석하여 연구에서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유발 요인 중 개인체계는 성별과 공부를 못하는 경향 이외에도 열등감과 우울, 우월의식, 화를 잘 냄, 잘난 척 성향, 성별편견을 확장하여 분석하였고 미시체계는 한 부모 가족과 경제수준, 교사관계 이외에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자녀에 무관심, 급우관계, 부부싸움 확장하여 분석하였고 중간체계로 비행관계 이외에 폭력씨클가입, 부모교사관계, 대중매체영향, 자녀급우관계를 유발요인을 확장시켜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확장하여 돈·물건 빼기, 신체상해, 따돌리기, 언어폭력 이외에도 물리적신체적폭력은 구타와 금품갈취 이외에 협박 추가시키고, 괴롭힘은 따돌림 이외에 강제심부름, 놀림을 추가하고 사이버폭력(아이디도용피해, 인터넷게시판폭력, 인터넷게임폭력, 휴대폰폭력) 등으로 추가하여 종속변인을 확장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기존에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확장된 범위만큼 명확

하게 드러날 것이며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은 개인의 발달 특성, 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와 많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과와 학교폭력 피해행동은 학생의 생활과 문화와 관련이 높을 것이므로 학교문화 개선만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 효과를 위한 개선과 예방책으로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개인체계점검 및 가정과 학교 사회경험과 영향력 등의 미시적 중간적 체계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에 끼치는 영향으로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개인적 발달과정, 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학교의 노력에 의해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유형을 조사하여 유발 요인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I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및 기간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영향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권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이므로 피해나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은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유형, 동거인(다수응답)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동안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각각 남학교 200명, 여학교 300명, 남녀공학 500명과 교육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센터로 wee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학교폭력 상담치료 받고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총 1100명 설문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므로 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286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별은 남학생이 58.0%로 여학생보다 약간 많았고, 현재 고등학교의 유형은 남녀공학이지만 반이 다르다가 59.8%, 남녀공학이 아니다 40.2%로 나타났다. 다음 가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은 중수준인 51.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중하 22.0%, 중상 18.5%, 하 4.5%, 상 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아버지, 어머니 또는 새어머니, 새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동거인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거인은 여자 남자 형제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부모와만 같이 거주하고 있는 편부모 가정은 전체 286명 중 42명(14.7%)이었고, 편부모 외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으로 대부분 여자, 남자 형제가 많았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의 유무를 살펴보면 총 14개의 가해항목, 피해항목을 조사한 결과, 14개 항목 중 가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가 74.8%,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가 74.8%로 나타났고 그 중 14개 항목에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 있는 경우가 51.7%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면서 피해경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2-1>와 같이 나타났다.

&lt;표2-1&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개인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166	58.0
	여	120	42.0
학년	중1학년	-	-
	인문고1학년	286	100.0
	실업고1학년	-	-
학교유형	남녀공학이 아니다	115	40.2
	남녀공학이지만 받은 다르다	171	59.8
경제수준	하	13	4.5
	중하	63	22.0
	중	146	51.0
	중상	53	18.5
	상	10	3.5
	무응답	1	.3
편부모가족 외 동거인 (다중응답)	아버지	223	31.4
	어머니	224	31.5
	새아버지	5	0.7
	새어머니	6	0.8
	남자형제	111	15.6
	여자형제	108	15.2
	할아버지	5	0.7
	할머니	15	2.1
	기타	9	1.3
	혼자산다	4	0.6
소계		710	100.0
편부모가족 (다중응답)	아버지	11	13.3
	어머니	31	37.3
	남자형제	13	15.7
	여자형제	19	22.9
	할아버지	2	2.4
	할머니	4	4.8
	기타	3	3.6
	소계	83	100.0
가해경험	유	214	74.8
	무(14항목경험모두 '1','2'응답자)	72	25.2
피해경험	유	214	74.8
	무(14항목경험모두 '1','2'응답자)	76	26.6
가해&피해	유	148	51.7
	무	138	48.3
합계		286	100.0

## B. 설문지 구성 및 측정도구

### 1. 설문지구성

본 연구는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관한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고등학교학생의 배경정보와 관련된 문항들과 함께 학교폭력 유발 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유형에 관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2문항이며,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항은 성별, 학년, 학교 유형, 동거인(다중응답가능), 경제수준이다. 둘째, 생태학적 분류에 의한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유발요인은 총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이다. 생태학적 유발 요인 중 외 체계와 거시체계는 제외하였는데 이유는 외 체계는 학생 개인과 관계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또는 교육제도에 관한 분류체계이다. 김선애(2003, p.2)연구에 의하면 학교 폭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을 포괄하는 연구와 고등학교만을 연구하는 것과 인문계, 실업계 모두 차이가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서울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로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거시체계는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 분류로 본 연구는 연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와 환경을 미치는 거시체계 또한 제외시켰다. 셋째, 물리적 신체적 폭력(협박의 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 폭력 3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유형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내적일관성을 알아본 결과 <표2-2>와 같이 나타났다.

&lt;표2-2&gt;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변인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alpha$
학교폭력유발요인		1~14	18	.836
학교폭력	가해경험	1,3,5,7,9,11,14,15,17,19,21,23,25,27	12	.918
	피해경험	2,4,6,8,10,12,13,16,18,20,22,24,26,28	12	.811

즉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은 전체 18문항으로 신뢰계수는 .836의 신뢰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의 유형분석을 위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항목은 각각 12문항으로 각각 .911신뢰도, .800신뢰도를 갖는다.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최소수준인 .60이상의 신뢰수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측정도구

### 가. 학교폭력 유발요인 실태

생태학적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폭력 유발 요인에 대하여 김규태(2013, p.40)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표2-3>와 같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 측정한 이유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학교폭력 유형별로 개인의 발달과정, 학교의 생활 및 환경, 가정생활 및 환경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예방책 및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영역은 크게 개인체계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로 나뉘었다. 설문지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체계에서 원인에 관한 문항은 공부를 못하는 경향, 가해·피해학생의 열등감과 우울성향, 우월의식, 화를 잘 내는 성향, 성별에 대한 편견이 해당된다. 미시체계에서 원인과 관한 문항은 경제수준,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부싸움, 급우관계, 한 부모가정, 급우관계가 해당한다. 중간체계에서 원인에 관한 문항은 가해·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폭력써클, 일진과의 친밀성, 비행관련성, 자녀의 급우관계에 대한 관심과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대중매체영향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의 김

규태(2013, p.41)의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학교폭력 유발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33문항은 제외시켰고, 가해 피해 학생의 특징 30문항을 14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18문항(개인 6문항, 미시체계 7문항, 중간체계 5문항)이며 설문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를 학교폭력 유발요인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만족)~ 5점 매우 그렇다(매우불만족)의 범위를 가진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유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t;표2-3&gt;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조사내용

구분	문 항	분류	
		실 태	원 인
개인 체계	1)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열등감과 우울 성향이 높다.(열등감과 우울 성향)		○
	2)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신체나 힘에 있어서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우월의식)		○
	3)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낸다.(화를 잘 내는 성향)		○
	4)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주로 잘난척하는 학생이다.(잘난척하는 성향)		○
	5)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다.(공부를 못하는 경향)		○
	6)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은 남자 학생일 경향이 높다.(성별에 대한 편견)	○	
	7)학교폭력 관련 방관자도 학교폭력에 책임이 있다.(방관자에 대한 견해)	○	
미시 체계	8)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다.(자녀에 대한 무관심)		○
	9)피해학생들은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며 싫어한다.(급우관계)		○
	10)피해학생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와줄 친구가 별로 없다.(피해학생의 교우관계)		○
	11)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은 서로 자주 싸우는 편이다.(부부싸움)		○
	12)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경향이 높다.(한 부모가정)		○
	13)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은 가정에게 있다.(가정의 폭력발생 책임)	○	
	14)우리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학교의 폭력에 대한 안전성)	○	
중간 체계	15)가해학생은 일진회 등의 폭력씨클에 가입되어 있다.(가해학생의 폭력씨클 가입)		○
	16)일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교폭력 피해를 받는 경향이 있다.(일진과의 친밀성)		○
	17)학교폭력 관련 부모님은 자녀 급우관계에 대해 모르는 경향이 높다.(자녀 급우관계)		○
	18)학교폭력 관련 부모님은 교사의 대화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부모의 교사와의 관계)		○
	19)교사의 처벌과 개입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교사의 처벌권 약화)		○
	20)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술, 담배, 오토바이 등을 자주 한다.(학생의 비행관련성)		○
	21)학교폭력 피해사실 공개해도 가정학교에서 별 소용이 없다.(피해사실 공개 비효과)	○	
	22)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것은 학교 인력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보복의 두려움)		○
외 체계	23)열악한 학군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열악한 학군)		○
	24)피해가해학생 가정은 비교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
	25)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폭력예방 프로그램)		○
	26)우리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다.(전문상담교사)	○	○
	27)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입시위주 교육)		○
	28)학교지킴이, 경찰, 교사 등의 합동순찰은 학교폭력을 감소하게 한다.(합동순찰)	○	
	29)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위주 처벌은 학교폭력을 감소하게 한다.(처벌 위주 처벌)	○	
	30)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은 학교폭력 감소를 감소하게 한다.(학교폭력 신고 전화)	○	
	31)학교 체육시간의 확대는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학교 체육시간 확보)	○	
		○	
거시 체계	32)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폭력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대중매체의 영향)		○
	33)전통적인 윤리관의 붕괴는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전통적 윤리관 붕괴)		○
	34)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등 가정요인이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가족요인)		○
	35)학교폭력이 심각해진 것은 사회전체의 무관심 때문이다.(사회의 무관심)		○
	36)퇴폐적 향락문화와 인터넷폭력 게임은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폭력적 문 화)		○
	37)아이들은 싸우면서 커다는 어른들의 생각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학교폭력에 대한 성인 관 점)		○
	38)언론의 폭력 및 자살보도 등은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부추긴다.(언론의 보도 영향)		○

자료: 김규태(2013, p.4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파주 : 양서원.

#### 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학교폭력 경험에 따른 유형에 대한 문항은 김선혜(2003, p.5), 김준호(1997), 김종호(2003) 학교폭력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으로 국한하고 가해자의 범주도 성인 범죄자나 교사와 부모의 폭력은 제외 하였다. 형법위반 범죄를 모두 포괄하지만 범죄 피해조사는 대체로 폭력범죄와 절도, 사기, 소매치기 같은 재산 범죄, 교통상해, 기타 등이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 주로 학교폭력의 가해 방법인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폭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협박, 구타, 금품갈취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적이며 심리적인 폭력인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학교폭력 피해척도를 구성하였다.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이버폭력(휴대폰 폭력)은 각각 다섯 개의 하위 문항으로 설문하여 가해와 피해의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여 각문항의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유형별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협박과 구타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으로 모두의 질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유형별 문항은 유형별로 구성하여 1년까지의 학교 안과 근처에서 당하는 기간을 정하고 학교 안과 근처에서 가해를 측정하였다. 이 항목은 김선혜(2003, p.5)를 참고하여 유형화 하였다. 특히 김선혜(2003, p.5)의 폭력 유형을 참고한 이유는 학교폭력 유형이 기존의 연구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근의 이슈가 되는 사이버 폭력 유형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으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휴대폰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하고 구분되는 각각의 유형은 물리적·신체적 폭력 구분에는 금품갈취, 협박, 구타로 구분하고, 괴롭힘은 강제 심부름, 놀림, 따돌림 이고 사이버폭력은 아이디 도용 피해,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 휴대폰 폭력 피해 등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물리적·신체적 폭력경험, 따돌림, 모바일폭력 등을 묻는 문항으로 총 28문

항이며 1년 동안의 자신의 경험의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전혀 없다', '없다',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1주일에 3번 이상'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자살, 음주, 청소년 가출, 성폭력 등 학생비행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 C.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상담 치료받고 있는 50인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이해도 여부를 파악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 단계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10월동안 서울 지역을 소재하는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각각 남학교 200명, 여학교 300명, 남녀공학 500명과 추가로 학교폭력 상담치료 받고 있는 50명을 추가로 총 100명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직접설문 후 바로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하였다.

둘째, 본 연구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인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A.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유형 실태

#### 1. 학교폭력 유발요인 실태

학교폭력 유발요인의 학교폭력 유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측정을 통해 연구의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3-1>과 같이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는 개인체계의 속성이 2.74로 성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 미시체계 2.36, 중간체계 2.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인체계로 정의한 여섯 개 요인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3.4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학교 폭행의 가해자는 남자가 많다는 성별에 대한 편견 2.86점, 자신이 신체적으로 강하고 힘도 더 세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2.78점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잘난 척 하는 성향이 2.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시체계에서는 경제수준 낮다는 인식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학교생활의 불만족 2.88점, 가정생활의 불만족 2.60점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1.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간체계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부족한 대화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대중매체로 부터의 영향이 2.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유발수준에 따라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개인체계점검이 필수적이고 학생과 관련된 가정 과 학교 생활 경험 등 미시적이고 중간적인 수준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정부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lt;표3-1&gt; 학교폭력유발 수준

		N=286		
변인		평균	표준편차	
학교폭력 유발요인	개인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3.43	1.17
		열등감과 우울성향	2.50	1.06
		우월의식	2.78	1.02
		화를 잘 내는 성향	2.73	1.11
		잘난척하는 성향	2.12	.92
		성별에 대한 편견	2.86	1.07
		전체	2.74	.52
	미시체계	경제수준	2.94	.85
		가정생활만족도	2.60	1.16
		학교생활만족도	2.88	1.06
		자녀에 대한 무관심	1.90	1.07
		급우관계	1.92	.90
		교사관계	2.00	1.02
		부부싸움	2.26	1.17
	전체	2.36	.72	
	중간체계	가해학생의 폭력써클가입	1.54	1.05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2.74	1.15
		비행행동	2.49	1.46
		대중매체영향	2.21	1.07
		자녀급우관계	2.65	1.14
		전체	2.32	.85

## 2.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유형의 실태

본 연구는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 실태 분석을 위해 학교폭력 경험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측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의 척도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의 경험정도 폭력 가해 및 피해 횟수에 따라 1점~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5점 척도로 '전혀 없다', '없다',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1주일에 3번 이상'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학교폭력을 일주일에 1번 경험한 경우는 1점, 2번 경험한 경우 2점, 3번 이상 경험한 경우는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피해경험(1.48점) 보다 가해경험(1.66점)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경험에서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이 1.80점

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학교폭력 경험을 갖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해행동 유형에서는 휴대폰 폭력피해가 2.03점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학교폭력 경험을 갖는 것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피해경험에서도 물리적·신체적 폭력이 1.57점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학교폭력 경험을 갖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피해 유형에서는 금품갈취가 1.98점으로 일주일에 약2회 이상 학교폭력 경험을 갖는 것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휴대폰 폭력피해 1.75점, 놀림 1.6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강제심부름 1.25점, 인터넷 게임 관련 폭력이 1.30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 별 실태를 살펴보면 <표3-2>와 같다.

<표3-2> 학교폭력 경험수준

		N=286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M	SD	M	SD
학교폭력 경험	물리적·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1.96	1.26	1.98	1.18
	피해협박	1.70	.99	1.44	.70
	구타	1.85	1.21	1.45	.81
	전체	1.80	1.03	1.57	.65
	괴롭힘				
	강제심부름	1.39	.69	1.25	.49
	놀림	1.78	1.13	1.66	1.04
	따돌림	1.73	1.07	1.44	.82
	전체	1.54	.72	1.37	.50
	사이버 폭력				
	아이디도용	1.65	1.01	1.61	1.03
	인터넷게시판 폭력	1.72	1.14	1.43	.82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	1.55	.97	1.48	.91
	피해				
	인터넷게임 관련 폭력	1.42	.88	1.30	.73
	휴대폰 폭력피해	2.03	1.26	1.75	1.08
	전체	1.67	.71	1.51	.56
전체		1.66	.71	1.48	.46

#### 가.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금품갈취와 협박은 무서울 말투로 협박하거나 당하는 가벼운 형태와 흥기위협을 하거나 당하거나 하는 심각한 형태, 구타 등을 포함한다. 협박은 이처럼 협박은 두 문제 이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한 문항으로 조사한

다른 문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분석을 나눠서 했다.

<표3-3>을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피해협박요인의 흥기로 위협한 경험이 10.1%로 가장 낮았고, 반면 금품갈취 및 무서운 말투로의 가해경험이 각 26.5% 가장 많았다. 한편 구타의 경우는 일주일에 3회 이상이 5.6%로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물리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은 금품갈취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의 피해경험도 2.4%로 가장 많았다. 반면 흥기위협은 3.7%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율인 구타 피해율이 약 35%, 금품피해 28%, 협박 20%와 결과와 다르다 이는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율의 차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측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조사는 ‘지난 일 년 동안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폭력발생을 넓게 포함하고 가해자도 성인, 부모, 교사 등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문항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이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였다.



&lt;표3-3&gt;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학교폭력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N	%	N	%
물리적·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없음	210	73.5	203	71.0
		일주일에 1회	24	8.4	38	13.3
		일주일에 2회	39	13.6	38	13.3
		일주일에 3회	13	4.5	7	2.4
	협박	없음	210	73.5	245	85.7
		가벼운형 일주일에 1회	32	11.2	22	7.7
		태(무서 일주일에 2회	29	10.1	12	4.2
		운말투) 일주일에 3회	13	4.5	4	1.4
		무응답	2	.7	3	1.0
		없음	257	89.9	275	96.3
		심각한형 일주일에 1회	12	4.2	6	2.1
		태(홍기 일주일에 2회	6	2.1	1	.3
	위협)	일주일에 3회	10	3.5	3	1.0
		무응답	1	.3	1	.3
		구타	없음	218	76.2	256
	일주일에 1회		31	10.8	23	8.0
	일주일에 2회		21	7.3	2	.7
	일주일에 3회		16	5.6	5	1.7
	합계		286	100.0	286	100.0

#### 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

괴롭힘은 매점심부름을 시키거나 당하거나 숙제하는 것을 시키거나 당하는 것으로 강제심부름과 놀림과 따돌림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표3-4>를 살펴보면 다음 괴롭힘에 대한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친구를 심하게 놀린 경험이 25.1%로 가장 많았고, 반면 시험 답을 위협하여 보여주게 한 경우가 6.3%로 가장 적었다. 한편 심하게 놀림 경험이 가장 많긴 했지만 일주일에 3회 이상 가해한 유형은 매점가기를 억지로 시킨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괴롭힘에 대한 피해경험도 친구를 심하게 놀림을 받은 경험이 18.5%로 가장 많았고, 주3회 이상의 잦은 횟수도 가장 많았다. 반면 시험 답을 위협하여 보여준 경우가 2.7%로 가장 적었다. 이는 김선애(2003, p.9)연구에 의하면 강제심부름과 놀림의 피해율이 유사하고 따돌림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가해 경험이 놀림이 많고 시험답안지 보여주게 하는 행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여 피해 경험비율과 일치한다.

&lt;표3-4&gt;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학교폭력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N	%	N	%
괴롭힘	매점 가기	없음	248	86.8	272	95.2
		일주일에 1회	18	6.3	13	4.5
		일주일에 2회	9	3.1	1	.3
		일주일에 3회	11	3.8	-	-
	강제심 부름	없음	255	89.2	277	96.9
		일주일에 1회	14	4.9	9	3.1
		일주일에 2회	10	3.5	-	-
		일주일에 3회	7	2.4	-	-
	시험답	없음	268	93.7	278	<b>97.3</b>
		일주일에 1회	4	1.4	1	.3
		일주일에 2회	5	1.7	2	.7
		일주일에 3회	6	2.1	2	.7
	놀림	무응답	3	1.0	3	1.0
		없음	214	74.9	233	81.5
		일주일에 1회	35	12.2	27	9.4
		일주일에 2회	26	9.1	15	5.2
		일주일에 3회	7	2.4	8	2.8
	따돌림	무응답	4	1.4	3	1.0
		없음	226	79.2	251	87.9
		일주일에 1회	29	10.1	21	7.3
		일주일에 2회	21	7.3	9	3.1
		일주일에 3회	7	2.4	2	.7
	전체	무응답	3	1.0	3	1.0
		없음	286	100.0	286	100.0

## 다.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사이버 폭력은 아이디 도용,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게임 관련사기,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 휴대폰 폭력 피해 로 세분화하여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표3-5>를 살펴보면 사이버에서 폭력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휴대폰 폭력피해가 33.6%로 가장 많았고, 주 3회 이상의 잦은 가해경험도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게임관련 폭력이 10.5%로 가장 적었다.

사이버에서 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휴대폰 폭력피해가 23.6%로 가장 많았고, 반면 인터넷 게임관련 폭력이 6.9%로 가장 적었다. 한편 주 3회 이상의 잦은 피해 경험을 보인 유형은 아이디 도용이 2.4%로 가장 많았다.

김선애(2003, p.10)연구에 의하면 아이디 도용피해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피해,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피해, 휴대폰 폭력피해가 이순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김선애(2003, p.11) 연구는 2003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핸드폰이 현재처럼 고등학생에게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 도용피해가 적어진 이유는 컴퓨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아이디 도용하는 피해가 김선애(2003, p.8)연구결과와 다른 이유라고 본다.

<표3-5>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

학교폭력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N	%	N	%	
아이디도용	없음	230	80.5	237	83.0	
	일주일에 1회	27	9.4	22	7.7	
	일주일에 2회	24	8.4	17	5.9	
	일주일에 3회	2	.7	7	2.4	
	무응답	3	1.0	3	1.0	
인터넷게시판 폭력	없음	228	79.9	255	89.3	
	일주일에 1회	19	6.6	13	4.5	
	일주일에 2회	27	9.4	14	4.9	
	일주일에 3회	9	3.1	1	.3	
	무응답	3	1.0	3	1.0	
사이버 폭력	인터넷게임 관 련 사기피해	없음	242	84.7	248	86.7
	일주일에 1회	20	7.0	20	7.0	
	일주일에 2회	16	5.6	8	2.8	
	일주일에 3회	5	1.7	6	2.1	
	무응답	3	1.0	4	1.4	
인터넷게임 관 련 폭력	없음	256	89.5	266	93.1	
	일주일에 1회	11	3.8	5	1.7	
	일주일에 2회	11	3.8	9	3.1	
	일주일에 3회	5	1.7	2	.7	
	무응답	3	1.0	4	1.4	
휴대폰 폭력피 해	없음	190	66.5	218	76.4	
	일주일에 1회	44	15.4	33	11.5	
	일주일에 2회	37	12.9	29	10.1	
	일주일에 3회	12	4.2	3	1.0	
	무응답	3	1.0	3	1.0	
전체		286	100.0	286	100.0	

## B.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인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가해 경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1>와 같이 학교유형, 경제수준과 가정생활, 성적,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

요인	특성	N	M	SD	t/F	Duncan
가 해 경 험	성별	남	166	1.69	.825	
		여	120	1.62		
	학교유형	남고/여고	115	1.82	2.864**	
		남녀공학	171	1.56		
	한부모가족	편부모가족외	244	1.66	-.369	
		편부모가족	42	1.70		
	경제수준	하	63	1.91	6.381**	A
		중	146	1.54		B
		상	76	1.71		AB
	가정생활 만족도	불만족	67	2.04	15.542***	A
		보통	78	1.68		B
		만족	140	1.47		C
	공부를 못하는 경향수준	하	149	1.82	7.390**	A
		중	63	1.52		B
		상	74	1.49		B
	학교생활 만족도	불만족	70	2.05	15.117***	A
		보통	107	1.59		B
		만족	108	1.49		B

\*p<.05, \*\*p<.01, \*\*\*p<.001

먼저 성별에서는 김미영(2007, p.304)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폭력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또한 김미영(2007p.304)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공학교가 아닌 학교의 학생이 1.82점으로 남녀공학의 학생의 1.56점 보다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864$ ,  $p<.01$ ).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등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되었다고 나타났고(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이진숙, 2010) 본 연구에서도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서도 한 부모 가족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좀 더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폭력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나타났으며(곽영길, 2007; 김병찬, 2012, p.43; 정현주, 2011) 본 연구에서도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1.91점으로 가장 높고 중 1.54점 상 1.71점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381$ ,  $p<.01$ ). 사후검정에서도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과 중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에서도 불만족집단이 2.04점으로 가해경험이 가장 많고 만족집단이 1.47점으로 가해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 수준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F=15.542$ ,  $p<.001$ ), 사후검정에서도 세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박효정·정미경·김효원(2009, p.40)에 의하면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와 학업흥미가 낮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성적이 낮은 집단이 1.82점으로 가장 많은 가해경험이 많았고 성적이 중, 상 집단은 1.54점 1.49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7.390$ ,  $p<.01$ ). 사후검정에서도 성적이 상, 중 집단은 동일하게 가해경험의 낮은 집단, 하 집단은 가해경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2.05점으로 가장 많은 가해경험이 많았고 만족도가 보통, 만족 집단은 1.59점 1.49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15.117$ ,  $p<.01$ ). 사후검정에서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 만족 집단은 동일하게 가해경험의 낮은 집단, 하 집단은 가해경험이 높은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남자 중학교의 학생이 가해경험수가 많았고 이는 학교유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가해학생의 가정의 경제수준과 만족의 정도와 학교생활 방식과 학업성적 및 학생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개입이 필요 하다. 즉 학교폭력은 학업성적과 가정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에 하나의 요인만이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2>와 같이 가해경험의 차이와 반대로 성별과 한 부모 가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피해경험과는 달리 가해경험과 같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1.988, p<.05$ ) 이는 Rigby(2005)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폭력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연구와 같다. 한 부모 가족의 유형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학생이 가해경험이 많은 결과에 상응하는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의 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119, p<.01$ ). 그 외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생활만족도, 성적수준,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피해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경험은 여학생의 학교폭력 유형과 방식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정생활 환경에 적합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lt;표4-2&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요인	특성	N	M	SD	t/F	Duncan	
피해 경험	성별	남	166	1.53	.49	1.988*	
		여	120	1.42	.39		
	학교유형	남고/여고	115	1.50	.53	.502	
		남녀공학	171	1.47	.40		
	한부모가족	편부모가족외	244	1.51	.48	3.119**	
		편부모가족	42	1.35	.26		
	경제수준	하	63	1.48	.47	.201	-
		중	146	1.50	.40		
		상	76	1.46	.55		
	가정 생활 만족도	불만족	67	1.51	.49	2.535	-
		보통	78	1.57	.52		
		만족	140	1.42	.39		
	공부를 못하는 경향수준	하	149	1.49	.49	.141	-
		중	63	1.46	.37		
		상	74	1.48	.46		
	학교 생활 만족도	불만족	70	1.54	.59	2.286	-
		보통	107	1.52	.45		
		만족	108	1.41	.34		

\*p&lt;.05, \*\*p&lt;.01

### C.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유형 간 유의한 상관관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 1.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유형의 상관관계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 상관관계에 의하면 먼저 개인체계의 학교폭력유발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게임사기와 게임 관련 폭력 가해행동을 제외한 모든 가해행동은 개인체계의 우월의식과 가장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며, 인터넷 게임사기와 게임 관련 폭력 가해행동은 공부를 못하는 경향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등감과 우울 성향은 금품갈취 요인에서만  $r=-.122(p<.05)$ 로 부(-)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 외 다른 가해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우월의식이 높을수록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우울감과 열등감이 강하다고 연구한 결과와 일치한다(염영미, 2012; 장맹배, 2011). 다음 미시체계의 폭력유발요인에서는 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등은 거의 가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반면 학생과 교사의 좋지 않은 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 좋지 않은 급우관계, 가정만족도, 부부싸움, 학교만족도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관계, 사회적 지지 및 의사소통이의 부족이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이 높다(이주리, 2008, p.565). 마지막으로 중간체계의 폭력유발요인은 사이버 상에서 아이디도용을 제외한 모든 가해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폭력써클 가입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 비행행동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와 교사의 무관심 관계, 대중매체의 폭력적 영향, 자녀급우관계의 무관심 등이 비슷한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Olweus(1993)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정도가 심하여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무관심하고 교사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다(김은영, 2008, p.79 ; 도기봉, 2007a, p.177).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5)연구에 의하면 개인 및 가정요인 중에서 성별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회경제적 배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해행동 중에는 협박행동이 폭력써클 가입과  $r=.741(p<.001)$ 고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 간 상관관계는 <표5-1>와 같다. 따라서 폭력써클 해체와 학생급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또래상담가 제도와 애플데이 같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등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lt;표5-1&gt;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 상관관계

	폭력유발요인																			학교폭력 가해유형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물리적,신체적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공부를 못하는 경험	열등감과우울	우월의식	화물칼날	질난 척성향	상벌관련	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안락도	학교안락도	자녀에부관심	금융관계	교사관계	부부싸움	폭력배경가입	부모교사관계	비행행동	대중매체영향	자녀금융관계	금품갈취	협박	구타	강제 성부담	눈림	따돌림	아이디도용	계시관 폭력	게임사기	게임폭력	휴대폰 폭력	
공부를 못하는 경험	1																													
열등감과우울	.003	1																												
우월의식	.000	-.072	1																											
화물칼날	.101	.265***	.188**	1																										
질난척성향	-.047	.081	.187**	.301***	1																									
상벌관련	.159**	.005	-.079	.054	.031	1																								
한 부모가족	.160**	-.038	.040	.047	-.107	.047	1																							
경제수준	.232***	.254***	.019	.177*	-.023	.061	.260***	1																						
가정안락도	.233***	.260***	.038	.178**	.145*	.130*	.128*	.467***	1																					
학교안락도	.322***	.231***	.123*	.244***	.058	.103	.075	.267***	.381***	1																				
자녀에부관심	.164**	.282***	.215***	.237***	.190*	.179**	.077	.300***	.538***	.576***	1																			
금융관계	.211***	.332***	.178**	.355***	.203***	.112	.035	.277***	.505***	.504***	.511***	1																		
교사관계	.297***	.150*	.345***	.335***	.223***	.171**	.018	.214***	.426***	.416***	.552***	.546***	1																	
부부싸움	.108	.234***	.132*	.257***	.150*	.100	-.009	.229***	.467***	.172**	.448***	.304***	.447***	1																
폭력배경가입	.228***	.005	.302***	.238***	.179**	.122*	.006	.206**	.403***	.360***	.635***	.473***	.664***	.410***	1															
부모교사관계	.237***	.094	.230***	.312***	.238***	.057	.084	.270***	.293***	.312***	.437***	.302***	.524***	.366***	.489***	1														
비행행동	.219***	-.009	.336***	.008	.181**	.042	.002	.073	.258***	.188**	.325***	.191**	.407***	.208***	.543***	.301***	1													
대중매체영향	.072	.125*	.197**	.234***	.106	.094	.011	.153*	.158**	.162**	.301***	.240***	.318***	.270***	.435***	.300***	.288***	1												
자녀금융관계	.110	.170**	.166**	.284***	.197**	.027	-.048	.192**	.403***	.345***	.573***	.403***	.480***	.408***	.482***	.479***	.314**	.300***	1											
금품갈취	.360***	-.122*	.424***	.134*	.130*	.113	.108	.090	.267***	.221***	.349***	.210***	.546***	.242***	.627***	.325***	.623***	.303***	.200**	1										
협박	.251***	-.034	.426***	.213**	.137*	.094	.009	.140*	.348***	.345***	.493***	.403***	.631***	.339***	.741***	.389***	.522***	.404***	.318**	.771***	1									
구타	.253***	-.036	.423***	.181**	.104	.133*	.124*	.166**	.330***	.283***	.430***	.336***	.587***	.302***	.699***	.354***	.561***	.332***	.357***	.764***	.818***	1								
강제성부담	.364***	.070	.329***	.217***	.158*	.182**	.004	.117	.311***	.263***	.464***	.423***	.544***	.340***	.682***	.336***	.417***	.312***	.311***	.644***	.782***	.686***	1							
눈림	.057	.008	.263***	.218***	.215***	.090	.001	.157*	.284***	.193**	.310***	.218**	.365***	.194**	.430***	.242***	.357***	.319***	.333***	.423***	.467***	.426***	.494***	1						
따돌림	.213***	.019	.263***	.219***	.204**	.005	-.027	.063	.197**	.153**	.335***	.301***	.425***	.293***	.526***	.240***	.325***	.310***	.312**	.430***	.513***	.415***	.573***	.565***	1					
아이디도용	.045	-.040	.157**	.077	.011	-.022	-.120*	.033	.029	.100	.009	.130*	.141*	.003	.116	.006	.006	.057	.077	.193**	.212***	.127	.238**	.276**	.199**	1				
계시관폭력	.075	-.047	.233***	.151*	.086	.034	-.089	.022	.249***	.228***	.223**	.148*	.294***	.167**	.411***	.189**	.308***	.245***	.236**	.403***	.451***	.363***	.465***	.506***	.451***	.215***	1			
게임사기	.166**	.007	.002	.007	.009	.154**	.019	.085	.075	.085	.073	.071	.129*	-.000	.154**	-.041	.152*	.141*	.017	.302**	.259***	.195*	.366***	.275***	.250***	.142*	.344***	1		
게임폭력	.224***	.008	.215***	.178**	.087	.160**	-.051	.061	.177**	.150*	.239***	.312***	.389***	.150*	.441***	.225**	.288***	.237***	.237**	.415***	.494***	.408***	.613***	.457***	.515***	.247***	.530***	.532***	1	
휴대폰폭력	.210***	-.034	.246***	.190**	.030	.022	.001	.005	.258***	.245***	.314***	.203**	.419***	.278***	.542***	.226**	.432***	.280***	.344***	.532***	.511***	.515***	.469***	.371***	.455***	.115	.448***	.221***	.423***	1

\*p&lt;.05, \*\*p&lt;.01, \*\*\*p&lt;.001

## 2.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 따르면 먼저 개인체계의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피해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금품갈취, 협박, 아이디도용, 사이버게시판폭력 등의 피해행동은 개인체계의 폭력유발요인과 상관관계가 없었고, 구타와 강제심부름,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와 폭력은 성별에 대한 편견이 정(+)적으로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놀림이나 따돌림 행동은 개인의 열등감과 우울성향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육홍렬(2005)연구와 같이 피해학생은 자존감이 낮은 편에 속하며 자신이 속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 미시체계의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피해행동의 상관관계에서는 금품갈취는 개인체계의 폭력유발요인과 상관관계가 없었고, 협박, 구타, 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의 피해행동은 좋지 않은 급우관계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폭력 피해행동에서는 아이디도용 피해는 한 부모가족, 인터넷 게시판 피해폭력은 경제수준과 부(-)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한 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에 아이디도용의 피해가 많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게시판 폭력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게임관련 사기피해는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 게임관련 폭력피해는 급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 휴대폰 폭력피해는 잦은 부부싸움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윤지(2005)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공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쉬우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피해 집단도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중간체계의 폭력유발요인과 피해행동의 상관관계에서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놀림,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중 금품갈취 피해는 폭력써클가입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강제심부름과 게임관련 사기피해는 폭력써클가입과 정(+)적 상관관계, 놀림은 비행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가입이 되어있는 학생일수록 강제심부름, 게시판폭력 피해가 많으며 반면 폭력써클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학생일수록 금품갈취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행동이 적을수록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행위로 볼 수 있는 돈·물건 빼기, 신체 상해 행위는 주요과목 이해도가 낮을수록·남자가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성별에 대한 인식·교사가 열정적이지 않을수록·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주형·정성수, 2012, p.9-10)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피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미시체계의 좋지 않은 급우관계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해행동 중에는 강제심부름 피해가  $r=.285(p<.001)$ 로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의 교우관계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와 학생교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또래상담가 등과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lt;표5-2&gt;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 상관관계

	폭력유발요인																							학교폭력 피해유형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물리적 신체적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공부할 못하는 경험	열등감과우울	우월의식	화물칼럼	갈난의 상황	상별관전	한 부모가족	경제수준	가정안락도	학교안락도	자녀배우관심	급우관계	교사관계	부부싸움	특리배우가임	부모교사관계	비행행동	대중매체영향	자녀급우관계	급종관위	협박	구타	강제 심부름	눈림	따돌림	아이디도용	게시판폭력	게임사기	게임폭력	휴대폰폭력
공부할 못하는 경험	1																													
열등감과우울	.003	1																												
우월의식	.000	-.072	1																											
화물칼럼	.101	.295***	.188**	1																										
갈난의 상황	-.047	.081	.187**	.301***	1																									
상별관전	.153**	.005	-.070	.054	.031	1																								
한 부모가족	.160**	-.038	0.00	.047	-.107	.047	1																							
경제수준	.232***	.254***	.019	.177**	-.023	.031	.200***	1																						
가정안락도	.233***	.200***	.038	.178**	.143*	.130	.128*	.450***	1																					
학교안락도	.222***	.231***	.123*	.244***	.058	.103	.075	.267***	.381***	1																				
자녀배우관심	.164**	.282***	.215***	.237***	.190**	.173**	.077	.300***	.558***	.376***	1																			
급우관계	.211***	.332***	.178**	.355***	.209***	.112	.035	.277***	.356***	.504***	.511***	1																		
교사관계	.237***	.150*	.345***	.335***	.223***	.171**	.018	.214**	.405***	.416***	.532***	.545***	1																	
부부싸움	.108	.234***	.132*	.257***	.150*	.100	-.009	.229***	.487***	.172**	.448***	.304**	.447***	1																
특리배우가임	.228***	.006	.302***	.238***	.179**	.122*	.006	.206***	.409***	.300***	.635***	.473***	.664***	.410***	1															
부모교사관계	.237***	.094	.290***	.302***	.228***	.057	.084	.270***	.263***	.312***	.437***	.332***	.534***	.305***	.489***	1														
비행행동	.219***	-.039	.306***	.098	.181**	.042	.082	.073	.258***	.188**	.325***	.191**	.400***	.208***	.543***	.301***	1													
대중매체영향	.072	.125*	.197**	.234***	.105	.094	.011	.153**	.158**	.162**	.301***	.240***	.318***	.270***	.426***	.300***	.288***	1												
자녀급우관계	.110	.170**	.166**	.284***	.197**	.027	-.048	.192**	.409***	.345***	.573***	.409***	.480***	.408***	.482***	.403***	.314***	.330***	1											
급종관위	.027	.007	-.007	-.032	-.033	-.033	-.000	.010	-.075	-.027	-.032	.018	-.003	.011	-.118*	-.018	-.051	-.051	-.105	1										
협박	.056	.103	.016	-.007	.032	.115	-.070	.050	.151*	.075	.085	.281***	.123*	.071	.017	.008	.017	.011	-.012	.334**	1									
구타	.000	-.005	-.012	.024	.054	.124*	-.012	.173**	.113	.010	.079	.198**	.039	.006	.043	-.045	.058	-.005	-.039	.285***	.532***	1								
강제 심부름	.009	.057	.124*	.076	.100	.151*	-.000	.009	.147*	.143*	.196**	.265***	.261***	.164**	.272***	.046	.157**	.165**	.072	.171**	.491***	.467***	1							
눈림	-.031	.201**	-.032	.009	.135*	.107	-.082	.061	.070	-.064	.081	.143*	-.023	.009	-.045	.013	-.138*	.063	.078	.023	.208***	.229***	.270***	1						
따돌림	.040	.193**	-.089	.104	.033	.063	-.104	.052	.028	.082	.102	.221***	.030	.081	-.088	-.002	-.071	.004	.007	.178**	.329***	.185**	.328***	.345***	1					
아이디도용	-.051	.004	-.005	.027	-.003	.006	-.133*	-.065	-.063	.071	.007	.079	-.016	-.132*	-.113	-.097	-.061	-.075	-.021	.117*	.228***	.103	.195**	.054	.251***	1				
게시판폭력	-.038	-.030	.055	-.012	.002	.005	-.110	-.131*	-.039	.076	-.032	.067	.034	-.002	-.007	-.071	-.052	.071	-.005	.055	.228***	.180**	.321***	.198**	.347***	.174*	1			
게임사기	.094	.025	.104	.024	.063	.141*	.000	.008	.155**	.045	.132*	.124*	.179**	-.015	.201**	.002	.145*	.155**	.007	.040	.267***	.215**	.413***	.161**	.118*	.187**	.176**	1		
게임폭력	.105	.027	.035	.041	-.035	.200**	-.121*	-.027	-.033	.032	.034	.164**	.144*	-.004	.110	.019	.003	.008	.053	.162**	.338***	.187**	.412***	.144*	.280***	.283**	.278***	.504***	1	
휴대폰폭력	.001	.102	-.054	.006	-.038	.023	-.013	.035	.023	.003	.043	.006	.127*	-.047	-.003	.031	.015	-.014	.244***	.287***	.165**	.178**	.075	.338***	.110	.229**	.128*	.181**	1	

\*p&lt;.05, \*\*p&lt;.01, \*\*\*p&lt;.001

## D.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변인을 통제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투입된 독립변인 간에는 상관성이 낮아야 하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1.76~2.23(기준:1.28<D-W<2.35), 공차한계 0.1 이상, VIF 1-4(기준=10이하)의 범위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기준변인: 여학생)과 학교유형(기준변인: 남녀공학), 한 부모가족(기준변인: 정상가족) 요인은 명목척도로 더미변인화하여 투입하였다.

### 1.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성별  $\beta=.100(p<.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금주(2002)연구와 일치한다. 학교폭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행동이 많은 이유는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동일시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에 있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비행행동이  $\beta=.317(p<.001)$ 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폭력써클가입  $\beta=.274(p<.001)$ , 미시체계의 교사관계  $\beta=.163(p<.05)$ , 개인체계의 우월의식  $\beta=.145(p<.01)$ , 열등감과 우울성향  $\beta=-.113(p<.05)$ , 공부를 못하는 경향  $\beta=.098$

( $p<.05$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61.8%( $R^2=.618$ )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19.127(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금품갈취행동이 많으며, 비행행동과 폭력써클 활동이 잦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우월의식이 높고 열등감과 우울감,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금품갈취 가해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동호(2011)에 의하면 불량써클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에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통해 돈과 물건 등을 지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열등의식을 갖는 학생들에게 빼앗는 행위라고 한다는 연구과 일치한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4)에 의하면 성별,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인식,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높다는 결과와 성별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품 갈취 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여학생의 학교폭력 방식과 유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사의 인식변화, 성적향상을 위한 보조교사 제도 확충, 폭력써클 가입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소 노력 과 비행행동 감소를 위한 학교문화 개선 등 학교 생활 방식 에 적합한 미시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표6-1> 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금품 갈취	통제 변인	성별	.253	.117	.100	2.171*	
		학교유형	.078	.112	.030	.694	
	개인 체계	공부 못하는 경향	.106	.048	.098	2.204*	
		열등감과우울	-.137	.058	-.113	-2.380*	
		우월의식	.177	.056	.145	3.149**	
		화를잘냄	.024	.054	.021	.448	
		잘난척성향	-.028	.060	-.021	-.467	
		성별편견	.021	.051	.018	.402	
		한 부모가족	.070	.150	.020	.464	
	미시 체계	경제수준	-.038	.071	-.026	-.535	.618 (.586)
		가정만족도	.081	.062	.074	1.316	19.127 *** (.000)
		학교만족도	-.051	.060	-.042	-.843	
		자녀에무관심	.008	.073	.007	.107	
		급우관계	-.012	.075	-.009	-.158	
		교사관계	.206	.079	.168	2.614*	
		부부싸움	.011	.055	.010	.195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324	.082	.274	3.960**	
		부모교사관계	-.023	.058	-.021	-.405	
		비행행동	.271	.044	.317	6.171***	
		대중매체영향	.058	.054	.050	1.083	
		자녀급우관계	-.047	.060	-.043	-.780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협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2>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beta = .433(p < .001)$ 으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미시체계의 교사관계  $\beta = .192(p < .01)$ , 개인체계에서는 우월의식  $\beta = .143(p < .01)$ , 중간체계의 대중매체영향  $\beta = .113(p < .05)$ , 개인체계의 열등감과 우울성향  $\beta = -.094(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성수(1997)의 연구는 언어의 분위기와 언어의 연상 작용이 분위기를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여러 학생이 집단을 구성해서 폭언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급생이나 후배 돈을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 영향요인은 64.3%( $R^2=.643$ )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21.302(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우월의식이 높으며 열등감과 우울성향이 낮은 학생일수록 협박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4)에 의하면 남자가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성별에 대한 인식, 한 부모가정, 교사가 열정적이지 않을수록·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학교안전폭력예방교육 과 영향이 높다는 연구와 성별, 교사관계, 학교규칙에 관한 인식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박 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교사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사의 인식개선, 폭력써클 가입 방지와 비행행동 감소를 위한 대책 등 학교생활 방식에 적합한 미시적 중간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표6-2> 폭력 유발요인이 협박(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101	.090	.050	1.120	.643 (.613)	21.302 *** (.000)
	학교유형	-.003	.087	-.001	-.035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45	.037	.052	1.207		
	열등감과우울	-.091	.045	-.094	-2.043*		
	우월의식	.140	.044	.143	3.219**		
	화를잘냄	.021	.042	.023	.509		
	잘난척성향	-.066	.046	-.061	-1.424		
	성별편견	-.040	.040	-.042	-1.001		
협박 미시 체계	한 부모가족	-.030	.117	-.011	-.260		
	경제수준	-.037	.055	-.031	-.669		
	가정만족도	.037	.048	.042	.765		
	학교만족도	.037	.046	.038	.788		
	자녀에무관심	.039	.056	.042	.695		
	급우관계	.057	.058	.052	.982		
	교사관계	.188	.061	.192	3.087**		
	부부싸움	.002	.042	.003	.055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411	.063	.433	6.484***		
	부모교사관계	-.043	.045	-.049	-.960		
	비행행동	.056	.034	.081	1.633		
	대중매체영향	.106	.042	.113	2.547*		
	자녀급우관계	-.028	.047	-.032	-.599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구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3>와 같이 성별  $\beta = .145(p < .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  $\beta = .408(p < .001)$ 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비행행동이  $\beta = .3166(p < .01)$ , 미시체계의 교사관계  $\beta = .163(p < .05)$ , 개인체계의 우월의식  $\beta = .154(p < .0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희(1998)연구로 교사의 체벌과 또래와 선후배사이의 관계가 학교폭력을 유발시키고 또한 한국개발원이 발표한 폭력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폭력사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 결과와 일치했다. 이 영향요인은 61.9%( $R^2 = .619$ )의 비교

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19.155(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타행동이 많으며, 비행행동과 폭력씨클 활동이 갖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우월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의 구타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타가해 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대책은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교사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사의 인식 개선, 폭력씨클 가입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비행행동 감소를 위한 학교풍토 개선 등 학교생활 방식에 적합한 미시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표6-3> 폭력 유발요인이 구타(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357	.113	.145	3.157**	.619 (.586)	19.155 *** (.000)
	학교유형	-.012	.108	-.005	-.112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76	.047	.072	1.619		
	열등감과 우울	-.093	.056	-.079	-1.658		
	우월의식	.184	.055	.154	3.363**		
	화를 잘냄	.054	.052	.049	1.035		
	잘난척성향	-.077	.058	-.059	-1.334		
	성별편견	.005	.050	.004	.091		
구타	한 부모가족	.105	.146	.031	.721		
	경제수준	.027	.069	.019	.394		
	가정만족도	.057	.060	.054	.954		
	학교만족도	-.012	.058	-.010	-.208		
	자녀에 무관심	-.001	.071	-.001	-.011		
	급우관계	-.009	.073	-.007	-.121		
	교사관계	.195	.076	.163	2.546*		
	부부싸움	.013	.053	.013	.245		
중간 체계	폭력씨클가입	.468	.079	.408	5.898**		
	부모교사관계	-.025	.056	-.024	-.448		
	비행행동	.138	.043	.166	3.236**		
	대중매체영향	.042	.052	.037	.806		
	자녀급우관계	-.012	.059	-.011	-.197		

\* $p<.05$ , \*\* $p<.01$ , \*\*\* $p<.001$

따라서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동은 주로 폭력써클 가입여부, 비행행동,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 우월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4)에 의하면 남자가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성별에 대한 인식, 한 부모가정, 교사가 열정적이지 않을수록, 학교만족도,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높다는 결과와 성별, 학교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즉 개인체계(우월의식) 미시체계(교사관계),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비행행동)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즉 물리적·신체적 폭력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발달 특성인 우월의식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폭력 써클가입 행동 과 비행행동이 많을 수 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신체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에 대한 우월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상담가를 통한 치료 등 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 및 비행행동 감소를 위해서 교사의 노력 등 과 폭력써클 해체와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될 수 있다.

#### 나.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강제심부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4>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beta=.489(p<.001)$ 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대중매체영향  $\beta=.149(p<.01)$ , 미시체계의 급우관계  $\beta=.150(p<.01)$ , 개인체계의 공부를 못하는 경향  $\beta=.109(p<.05)$ 와 우월의식  $\beta=.102(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56.2%( $R^2=.562$ )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15.154(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김창호(2003)에 의하면 괴롭힘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지속성을 갖고 구체적인 목적도 없이 재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

해학생의 심리적으로 잔혹한 성향이(우월의식)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급우관계가 좋지 않고, 우월의식과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강제심부름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제심부름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폭력써클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방지 및 폭력써클 해체에 대한 대책, 폭력적인 대중매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급우관계개선을 위한 또래 상담가 등과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실 등과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표6-4> 폭력 유발요인이 강제심부름(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R <sup>2</sup> )	F(p)
통제 변인	성별	.030	.069	.022	.441	.562 (.525)	15154 *** (.000)
	학교유형	-.015	.066	-.010	-.223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65	.028	.109	2.275*		
	열등감과우울	-.032	.034	-.048	-.952		
	우월의식	.069	.033	.102	2.076*		
	화를잘냄	.026	.032	.041	.810		
	잘난척성향	-.012	.035	-.016	-.339		
	성별편견	.026	.030	.040	.852		
	한 부모가족	-.129	.089	-.066	-1.446		
강제 심부 름	경제수준	-.040	.042	-.050	-.961		
	가정만족도	.025	.036	.042	.688		
	학교만족도	-.033	.035	-.050	-.932		
	자녀에무관심	.026	.043	.041	.603		
	급우관계	.115	.045	.150	2.571*		
	교사관계	.058	.047	.085	1.239		
	부부싸움	.014	.032	.024	.437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319	.048	.489	6.605***		
	부모교사관계	-.051	.034	-.084	-1.477		
	비행행동	.014	.026	.029	.533		
	대중매체영향	.096	.032	.149	3.036**		
	자녀급우관계	-.063	.036	-.103	-1.756		

\*p<.05, \*\*p<.01, \*\*\*p<.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놀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5>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  $\beta=.209(p<.05)$ , 미시체계의 가정만족도  $\beta=.172(p<.05)$ , 중간체계의 대중매체영향  $\beta=.129(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연구결과는 놀림행동에 개인체계인 열등감과 우울성향, 잘난척하는 성향과 유의미한 연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김창호(2003)에 의하면 가해구성원들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죄의식을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집단 방어의 형태라고 하여 상이했다. 이 영향요인은 30.0%( $R^2=.300$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5.052$  ( $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가정만족도가 낮으며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폭력의 놀림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놀림 가해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생활환경방식개선을 위한 가정의 노력 및 폭력써클 가입 방지 및 폭력써클 해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체와 대중매체 영향력 감소를 위한 정부의 폭력 매체 감소대책과 적합한 미시적 중간적 체계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lt;표6-5&gt; 폭력 유발요인이 놀림(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218	.143	.095	1.527	.300 (.240)	5.052 *** (.000)
	학교유형	-.003	.137	-.001	-.024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26	.059	-.027	-.439		
	열등감과우울	-.057	.071	-.052	-.815		
	우월의식	.116	.069	.104	1.677		
	화를잘냄	.122	.066	.119	1.861		
	잘난척성향	.092	.073	.075	1.262		
	성별편견	.003	.063	.003	.055		
	한 부모가족	-.113	.184	-.035	-.614		
놀림	경제수준	.070	.087	.053	.803		
	가정만족도	.170	.076	.172	2.246*		
	학교만족도	-.069	.074	-.063	-.931		
	자녀에무관심	-.045	.089	-.043	-.508		
	급우관계	-.027	.093	-.022	-.294		
	교사관계	.083	.097	.074	.856		
	부부싸움	-.108	.067	-.111	-1.608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223	.100	.209	2.226*		
	부모교사관계	-.052	.071	-.053	-.736		
	비행행동	.074	.054	.095	1.366		
	대중매체영향	.137	.066	.129	2.077*		
	자녀급우관계	.105	.074	.105	1.413		

\* $p < .05$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따돌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6>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는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  $\beta = .379(p < .05)$ , 개인체계의 공부를 못하는 경향  $\beta = .123(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35.7%( $R^2 = .357$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6.556(p < .001)$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현주(2005)연구에서 따돌림행동 가해행동은 또래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 유능감이 아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경향으로 또래 수용능력을 약화시키며 또래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행동을 보인다

고 하는 연구결과와 공부를 못하는 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같지만 우월의식과 잘난척하는 성향과는 관련이 없어 본 연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따돌림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따돌림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따돌림 가해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에서 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등의 학교생활 방식 개선과, 폭력적인 대중매체 영향력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폭력물 감소를 위한 노력, 폭력써클 가입 방지 및 폭력써클 해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체 등과 같은 미시적 중간적 체계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표6-6> 폭력 유발요인이 따돌림(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071	.129	-.033	-.548	.357 (.303)	6.556 *** (.000)
	학교유형	.170	.124	.077	1.376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114	.053	.123	2.132*		
	열등감과우울	-.070	.064	-.068	-1.098		
	우월의식	.041	.062	.039	.658		
	화를잘냄	.059	.059	.061	.999		
	잘난척성향	.079	.066	.069	1.198		
	성별편견	-.013	.057	-.013	-.227		
	한 부모가족	-.181	.166	-.060	-1.090		
	경제수준	-.027	.079	-.021	-.338		
	가정만족도	-.049	.068	-.053	-.721		
	학교만족도	-.096	.066	-.094	-1.454		
미시 체계	자녀에무관심	.036	.081	.036	.445		
	급우관계	.102	.083	.087	1.225		
	교사관계	.026	.087	.025	.300		
	부부싸움	.022	.060	.024	.365		
	폭력써클가입	.382	.090	.379	4.220*		
	부모교사관계	-.029	.064	-.031	-.452		
	비행행동	.010	.049	.014	.207		
	대중매체영향	.095	.059	.095	1.594		
	자녀급우관계	.040	.067	.043	.599		
	중간 체계						

\*p<.05, \*\*\*p<.001

따라서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 행동은 주로 폭력써클 가입, 공부를 못하는 경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2) 에 의하면 주요과목 이해도, 한 부모가정, 교사가 열정적이지 않다는 인식,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올바른 인성지도에 대한 학교만족도, 학교안전폭력예방교육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고, 이는 본연구와 주요과목 이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즉 괴롭힘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즉 괴롭힘은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폭력써클가입 할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 이에 따르면 괴롭힘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실 등과 폭력써클 해체와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 다.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아이디 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7>와 같이 유의한 영향요인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lt;표6-7&gt; 폭력 유발요인이 아이디도용(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059	.146	-.029	-.401	.081 (.003)	1.040 (.416)
	학교유형	-.008	.140	-.004	-.056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82	.060	-.094	-1.365		
	열등감과우울	-.109	.072	-.112	-1.520		
	우월의식	.135	.070	.136	1.910		
	화를잘냄	.055	.067	.061	.826		
	잘난척성향	-.090	.075	-.082	-1.200		
	성별편견	-.007	.064	-.007	-.108		
	한 부모가족	-.368	.188	-.129	-1.955		
아이 디 도용	경제수준	-.028	.089	-.024	-.319		
	가정만족도	.034	.077	.038	.436		
	학교만족도	.078	.075	.080	1.038		
	자녀에무관심	-.008	.091	-.008	-.083		
	급우관계	.132	.094	.118	1.398		
	교사관계	.029	.099	.030	.298		
	부부싸움	-.012	.068	-.014	-.180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025	.102	.026	.241		
	부모교사관계	-.008	.073	-.009	-.115		
	비행행동	-.012	.055	-.018	-.222		
	대중매체영향	.009	.067	.009	.133		
	자녀급우관계	-.028	.076	-.031	-.368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시판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8>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  $\beta=.282(p<.01)$ , 미시체계의 가정만족도  $\beta=.249(p<.01)$ , 개인체계의 우월의식  $\beta=.171(p<.01)$ , 중간체계의 대중매체영향  $\beta=.157(p<.05)$ , 미시체계의 한 부모가족  $\beta=-.133(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준호, 이선애(2003, p.13)에 의하면 언어적 폭력의 원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문화의 영향,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언어적 폭력은 자신이 폭력적 언어로 이야기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 영향요인은 30.2%( $R^2=.302$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5.108(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가정만족도가 낮고,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과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사이버폭력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히려 한 부모 가족 보다 한 부모 가족이 아닌 집단이 인터넷 사이버에서 게시판 폭력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게시판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우월의식) 미시체계(한 부모가족, 가족만족도),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가해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학교전문 상담사와 상담과 가정생활 방식개선을 위한 가정의 노력, 폭력써클 가입 방지 및 폭력 써클 해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 등과 같은 미시적 중간적 체계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 하다.

&lt;표6-8&gt;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시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인터넷게시판 폭력	통제변인						
	성별	.037	.143	.016	.260		
	학교유형	.135	.137	.057	.980		
	공부를 못하는 경향	-.043	.059	-.044	-.729		
	개인체계						
	열등감과 우울	-.091	.071	-.082	-1.286		
	우월의식	.191	.069	.171	2.761**		
	화를 잘냄	.112	.066	.109	1.704		
	잘난척성향	-.066	.073	-.054	-.900		
	성별편견	.003	.063	.003	.053		
	한 부모가족	-.429	.185	-.133	-2.323*		
	경제수준	-.097	.087	-.073	-1.107	.302	5.108
	가정만족도	.246	.076	.249	3.254**	(.243)	***
	학교만족도	.123	.074	.112	1.674		(.000)
	미시체계						
	자녀에 무관심	-.102	.089	-.097	-1.144		
	급우관계	-.096	.093	-.076	-1.036		
	교사관계	-.015	.097	-.014	-.159		
	부부싸움	-.091	.067	-.094	-1.363		
	중간체계						
	폭력써클가입	.303	.100	.282	3.015**		
	부모교사관계	-.070	.071	-.070	-.983		
	비행행동	.043	.054	.056	.805		
	대중매체영향	.167	.066	.157	2.532*		
	자녀급우관계	.040	.074	.040	.545		

\*p&lt;.05, \*\*p&lt;.01, \*\*\*p&lt;.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9>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중간체계의 부모교사관계  $\beta = -.168(p < .05)$ , 개인체계의 공부를 못하는 경향  $\beta = .132(p < .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3.9%( $R^2 = .139$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1.910(p < .05)$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폭력유형과 달리 폭력써클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많을수록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에서 사기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중간체계(부모교사관계)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 가해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적과 관련된 학생의 생활 방식 및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다른 학생보다 지나치게 좋을수록 가해행동을 보이는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여 보조강사, 방과 후 학교 등과 같은 정부의 대책이 미시적 중간적 체계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고 다른 학교폭력과 달리 부모교사관계가 좋을수록 가해행동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lt;표6-9&gt;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인터넷게임 사기	통제 변인						
	성별	.257	.137	.130	1.883		
	학교유형	-.228	.131	-.113	-1.743		
	공부를 못하는 경향	.111	.056	.132	1.971*		
	개인 체계	열등감과우울	.029	.067	.030	.427	
		우월의식	.073	.066	.076	1.104	
		화를잘냄	-.007	.063	-.008	-.109	
		잘난척성향	.008	.070	.008	.121	
		성별편견	.054	.060	.060	.907	
	미시 체계	한 부모가족	-.137	.176	-.050	-.780	
		경제수준	.099	.083	.086	1.185	.139 (.066)
		가정만족도	.008	.072	.009	.110	
		학교만족도	-.008	.070	-.009	-.119	
		자녀에무관심	-.025	.085	-.028	-.293	
		급우관계	-.010	.088	-.009	-.115	
		교사관계	.092	.092	.097	1.001	
		부부싸움	-.069	.064	-.083	-1.075	
		폭력써클가입	.142	.096	.154	1.481	
		부모교사관계	-.144	.068	-.168	-2.116*	
	중간 체계	비행행동	.017	.051	.026	.331	
		대중매체영향	.095	.063	.105	1.520	
		자녀급우관계	-.059	.071	-.069	-.834	

\* $p < .05$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임 관련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0>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  $\beta = .309(p < .01)$ , 미시체계의 학교만족도  $\beta = -.136(p < .05)$ , 개인체계의 공부를 못하는 경향  $\beta = .134(p < .05)$ , 미시체계의 한 부모가족  $\beta = -.120(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27.6%( $R^2 = .276$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4.509(p < .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오히려 학교만족도가 높고, 공부를 못하는 경향일수록 인터넷 게임 관련 폭력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

넷 게시판 관련 폭행행동과 같이 오히려 한부모 가족 보다 한 부모 가족이 아닌 집단이 인터넷 사이버에서 게임 관련 폭력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 폭행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미시체계(한 부모가족, 학교만족도),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게임 관련하여 폭행가해 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한 부모가족의 가정에 대한 학교상담실시 및 가정 분위기 개선 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만족도 등의 학교생활 방식개선을 위하여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과 폭력써클 가입 방지 및 폭력써클 해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체 등과 같은 미시적, 중간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 하다.

&lt;표6-10&gt;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β	t	R <sup>2</sup> (adjR <sup>2</sup> )	F(p)	
통제 변인	성별	-.050	.114	-.028	-.440	.276 (.215)	4.509 *** (.000)	
	학교유형	-.030	.109	-.016	-.272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102	.047	.134	2.182*			
	열등감과우울	-.059	.056	-.069	-1.058			
	우월의식	.035	.055	.040	.640			
	화를잘냄	.067	.052	.083	1.281			
	잘난척성향	-.044	.058	-.046	-.757			
	성별편견	.073	.050	.088	1.462			
	한 부모가족	-.300	.146	-.120	-2.048*			
인터넷 게임 폭력	경제수준	-.028	.069	-.027	-.406			
	가정만족도	.016	.060	.021	.268			
	학교만족도	-.116	.058	-.136	-1.993*			
	미시 체계	자녀에무관심	.033	.071	.041			.473
	급우관계	.134	.073	.137	1.829			
	교사관계	.092	.077	.106	1.196			
	부부싸움	-.078	.053	-.103	-1.465			
	폭력써클가입	.258	.080	.309	3.245**			
	중간 체계	부모교사관계	-.038	.056	-.049			-.671
		비행행동	.015	.043	.024			.346
대중매체영향		.042	.052	.051	.804			
자녀급우관계		.012	.059	.015	.201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휴대폰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1>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중간체계의 폭력 써클가입  $\beta = .392(p < .001)$ , 비행행동  $\beta = .214(p < .01)$ 로 높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 개인체계의 화를 잘 내는 성향  $\beta = .121(p < .05)$ , 잘난 척하는 성향  $\beta = -.115(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38.9%( $R^2 = .389$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7.509(p < .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 후 활동이 잦으며 비행행동이 잦을수록 휴대폰 폭력행동이 많아지고 개인적 성향 중 화를 잘 내거나 오히려 잘난 척하는 성향이 낮을수록 휴대폰으로의 폭력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폰 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화를잘냄, 잘난 척 하는 성향),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비행행동)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휴대폰 폭력 관련하여 폭행가해 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적 특성인 화를 잘 내는 성향과 잘난 척 하는 성향에 관한 학교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과 비행행동 감소와 폭력써클 가입 방지 및 폭력써클 해체를 위한 중간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 하다.

<표6-11> 폭력 유발요인이 휴대폰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062	.148	-.024	-.416	.389 (.337)	7.509 *** (.000)
	학교유형	.188	.142	.072	1.324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57	.061	.052	.928		
	열등감과우울	-.056	.073	-.046	-.768		
	우월의식	.000	.072	.000	.004		
	화를잘냄	.138	.068	.121	2.028*		
	잘난척성향	-.156	.076	-.115	-2.060*		
	성별편견	-.027	.065	-.023	-.422		
	한 부모가족	.008	.191	.002	.043		
	경제수준	-.087	.091	-.059	-.960		
	가정만족도	.048	.078	.044	.611		
	학교만족도	.060	.076	.049	.785		
휴대 폰 폭력	미시 체계	자녀에무관심	-.080	.093	-.069		
	급우관계	-.108	.096	-.077	-1.122		
	교사관계	.015	.100	.012	.151		
	부부싸움	.026	.069	.024	.377		
	폭력써클가입	.466	.104	.392	4.477***		
	부모교사관계	-.042	.074	-.038	-.565		
	비행행동	.184	.056	.214	3.284**		
	대중매체영향	.026	.068	.022	.387		
	자녀급우관계	.116	.077	.105	1.515		
	중간 체계						

\*p<.05, \*\*p<.01, \*\*\*p<.001

따라서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상에서 폭력 행동은 주로 폭력써클 가입여부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학교와 가정 만족도 또는 공부경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상 폭력행동은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급우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폭력 써클가입 할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실 등과 폭력써클 해체, 급우관계를 위해서 또래 상담가 등과 같은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폭력써클 가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학생과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와 대중매체 영향, 개인적 성향 중 공부를 못하는 경향, 우월의식 등이 주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낮은 가정만족도, 한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 열등감과 우울 등의 요인이 학교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공부 못하는 경향, 우울의식) 미시체계(급우관계, 교사관계), 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대중매체영향)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다만 사이버 상에서 폭력행동 중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요인은 폭력써클 가입여부보다는 부모와 교사의 관계와 성적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은 개인의 발달 특성, 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와 많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문화 개선만으로 학교폭력의 감소 및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생활과 학교 문화적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학교의 노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문화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인식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 2.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 6-12>와 같이 통제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립변인에서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beta = -.279(p < .001)$ 로 영향을 미치며 7.6%( $R^2 = .076$ )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회귀 모형 식에서  $F = .972(p > .05)$ 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품갈취 피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품갈취 피해행동을 당하는 학생보다는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lt;표6-12&gt; 폭력 유발요인이 금품갈취(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금품 갈취	통제 변인						
	성별	-.105	.167	-.045	-.628		
	학교유형	.197	.160	.082	1.228		
	공부를 못하는 경향	.077	.069	.077	1.107		
	개인 체계	열등감과우울	.013	.083	.011	.152	
		우월의식	.005	.081	.004	.060	
		화를잘냄	-.044	.077	-.042	-.569	
		잘난척성향	-.001	.087	.000	-.007	
		성별편견	-.016	.073	-.015	-.224	
	금품 갈취	한 부모가족	-.198	.217	-.060	-.912	
		경제수준	.054	.103	.040	.527	.076
		가정만족도	-.112	.088	-.111	-1.271	(-.002)
		학교만족도	-.062	.086	-.055	-.719	
		자녀에무관심	.076	.105	.070	.727	
	미시 체계	급우관계	.088	.108	.069	.809	
		교사관계	.124	.111	.109	1.124	
		부부싸움	.117	.078	.117	1.488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310	.117	-.279	-2.641**	
		부모교사관계	.035	.083	.035	.423	
		비행행동	.041	.064	.051	.643	
		대중매체영향	-.009	.078	-.008	-.118	
		자녀급우관계	-.110	.087	-.107	-1.256	

\*\*p&lt;.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협박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3>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성별이  $\beta=.139(p<.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인에서는 미시체계의 급우관계가  $\beta=.416(p<.001)$ 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중간체계의 폭력써클 가입이  $\beta=-.233(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7.9%( $R^2=.179$ )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2.564(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협박피해가 많으며, 학교에서 급우관계가 좋지 않고 폭력써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협박피해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협



박 피해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미시체계(급우관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따라서 남학생이 협박피해경험수가 많은 만큼 남학생의 학교폭력 방식과 유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피해학생의 급우관계 및 학교생활 방식에 맞는 개입이 필요 하다. .

<표6-13> 폭력 유발요인이 협박(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198	.095	.139	2.083*	.179 (.109)	2.564 *** (.000)
	학교유형	.077	.091	.053	.845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11	.040	.018	.276		
	열등감과우울	-.003	.047	-.005	-.066		
	우월의식	.052	.046	.075	1.120		
	화를잘냄	-.045	.044	-.071	-1.024		
	잘난척성향	.005	.049	.006	.093		
	성별편견	.035	.042	.054	.844		
협박 미시 체계	한 부모가족	-.129	.124	-.065	-1.044		
	경제수준	.004	.059	.005	.067		
	가정만족도	.097	.050	.159	1.933		
	학교만족도	-.078	.049	-.115	-1.577		
	자녀에무관심	-.015	.060	-.023	-.252		
	급우관계	.321	.062	.416	5.191***		
	교사관계	.065	.063	.094	1.034		
	부부싸움	.021	.045	.036	.478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157	.067	-.233	-2.347*		
	부모교사관계	-.030	.048	-.049	-.638		
	비행행동	.017	.036	.035	.471		
	대중매체영향	.008	.044	.013	.191		
	자녀급우관계	-.078	.050	-.125	-1.565		

\* $p < .05$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구타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4>와 같이 성별  $\beta = .217(p < .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인에서는 미시체계의 급우관계  $\beta = .282(p < .001)$ , 경제수준  $\beta = .2503(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9.3%( $R^2=.193$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2.808$  ( $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타피해가 많고, 급우관계와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학교폭력의 구타피해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타 피해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미시체계(급우관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따라서 남학생이 구타피해경험수가 많은 만큼 남학생의 학교폭력 방식과 유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피해학생의 급우관계 개선을 위한 또래 상담 및 학교생활 방식 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인식과 정부, 학교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6-14> 폭력 유발요인이 구타(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358	.109	.217	3.278**	.193 (.124)	2.808 *** (.000)
	학교유형	.049	.105	.029	.469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10	.045	-.015	-.231		
	열등감과 우울	-.085	.054	-.107	-1.554		
	우월의식	-.016	.053	-.020	-.296		
	화를 잘냄	.028	.050	.038	.548		
	잘난척성향	.039	.057	.044	.687		
	성별편견	.039	.048	.052	.821		
구타	한 부모가족	-.270	.142	-.118	-1.906		
	경제수준	.239	.067	.250	3.557***		
	가정만족도	.031	.058	.044	.543		
	학교만족도	-.108	.056	-.138	-1.915		
	자녀에무관심	.007	.068	.009	.098		
	급우관계	.252	.071	.282	3.553***		
	교사관계	.077	.072	.096	1.061		
미시 체계	부부싸움	.023	.051	.033	.445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056	.077	-.072	-.731		
	부모교사관계	-.052	.055	-.074	-.960		
	비행행동	.032	.042	.058	.776		
	대중매체영향	-.075	.051	-.099	-1.482		
	자녀급우관계	-.097	.057	-.135	-1.704		

\*\* $p<.01$ , \*\*\* $p<.001$

학교폭력유발요인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에 피해에는 주로 같은 반 학생과의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시체계(급우관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또래상담사 제도 도입 등의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될 수 있다.

#### 나.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강제심부름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5>와 같이 통제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미시체계의 급우관계가  $\beta=.236(p<.01)$ 으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중간체계의 자녀급우관계  $\beta=-.164(p<.01)$ , 부모교사관계  $\beta=-.151(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9.5%( $R^2=.195$ )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2.856(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우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강제심부름 피해행동이 많아지며, 또한 부모가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부모가 적극적일수록 오히려 강제심부름 피해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괴롭힘 피해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중간체계(부모와 교사관계, 자녀급우관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괴롭힘에 대하여 피해행동을 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부모가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가 자녀 친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적합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자녀의 급우관계에 관심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이유는 관심이 높을수록 학부모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고 보

므로 중간체계의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만큼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표6-15> 폭력 유발요인이 강제심부름(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β	t	R <sup>2</sup> (adjR <sup>2</sup> )	F(p)	
강제 심부 름	통제 변인	성별	.115	.064	.118	1.786	.195 (.127)	2.856 *** (.000)
		학교유형	-.060	.062	-.060	-.966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12	.027	.030	.456		
		열등감과우울	-.018	.032	-.040	-.576		
		우월의식	.040	.031	.084	1.264		
		화를잘냄	.007	.030	.016	.232		
		잘난척성향	.008	.033	.015	.235		
		성별편견	.011	.028	.024	.373		
	미시 체계	한 부모가족	-.088	.084	-.065	-1.057		
		경제수준	-.028	.040	-.049	-.698		
		가정만족도	.018	.034	.043	.530		
		학교만족도	-.008	.033	-.018	-.245		
		자녀에무관심	.003	.040	.006	.070		
		급우관계	.124	.042	.236	2.973**		
		교사관계	.054	.043	.114	1.259		
		부부싸움	.038	.030	.091	1.241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071	.045	.154	1.563		
		부모교사관계	-.063	.032	-.151	-1.971*		
		비행행동	-.003	.025	-.010	-.133		
		대중매체영향	.039	.030	.086	1.294		
		자녀급우관계	-.070	.034	-.164	-2.066*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놀림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6>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독립변인에서 미시체계의 급우관계가  $\beta = -.185(p < .05)$ 로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치며, 다음 중간체계의 비행행동  $\beta = -.171(p < .05)$ , 학교만족도  $\beta = -.162(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5.2%( $R^2 = .152$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2.116(p < .01)$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우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놀림 피해행동이 많아지며, 또한 비행행동이 적거나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놀림 피해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놀림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 분위기 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생활 방식에 적합한 미시적 중간적 접근에서 학교폭력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비행성이 특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6-16> 폭력 유발요인이 놀림(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215	.143	.102	1.502	.152 (.080)	2.116 ** (.004)
	학교유형	-.114	.138	-.053	-.830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49	.060	-.054	-.814		
	열등감과우울	.100	.071	.099	1.405		
	우월의식	.029	.070	.028	.413		
	화를잘냄	.017	.066	.018	.259		
	잘난척성향	.130	.074	.116	1.752		
	성별편견	.068	.063	.070	1.075		
놀림	한 부모가족	-.178	.186	-.061	-.955		
	경제수준	.069	.088	.056	.781		
	가정만족도	.040	.076	.045	.535		
	학교만족도	-.163	.074	-.162	-2.200*		
	자녀에무관심	.040	.090	.041	.449		
	급우관계	.212	.093	.185	2.272*		
	교사관계	-.100	.095	-.098	-1.055		
	부부싸움	.054	.067	.061	.807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028	.101	-.028	-.273		
	부모교사관계	.025	.072	.027	.345		
	비행행동	-.122	.055	-.171	-2.230*		
	대중매체영향	.063	.067	.065	.949		
	자녀급우관계	-.022	.075	-.024	-.294		

\* $p < .05$ , \*\* $p < .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괴롭힘 요인 중 따돌림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 결과 <표6-17>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학교유형  $\beta=.130(p<.05)$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인에서 미시체계의 급우관계만  $\beta=.304(p<.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현주(2005) 집단 따돌림을 잘 당하는 학생은 또래집단의 문화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따돌림 피해행동 영향요인은 15.1%( $R^2=.151$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2.098(p<.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따돌림피해학생은 남녀공학의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또래상담사 제도 및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표6-17> 폭력 유발요인이 따돌림(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203	.108	-.127	-1.872	.151 (.079)	2.098** (.004)
	학교유형	.211	.104	.130	2.022*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05	.045	-.007	-.112		
	열등감과우울	.036	.054	.047	.667		
	우월의식	-.035	.053	-.045	-.664		
	화를잘냄	.015	.050	.021	.299		
	잘난척성향	-.013	.056	-.016	-.235		
	성별편견	.043	.048	.059	.897		
따돌 림	한 부모가족	-.230	.141	-.104	-1.634		
	경제수준	.047	.067	.050	.697		
	가정만족도	-.050	.057	-.073	-.880		
	학교만족도	-.003	.056	-.004	-.056		
	자녀에무관심	.133	.068	.181	1.953		
	급우관계	.263	.071	.304	3.735***		
	교사관계	-.086	.072	-.111	-1.193		
	부부싸움	.020	.051	.029	.387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106	.076	-.141	-1.392		
	부모교사관계	-.058	.054	-.084	-1.067		
	비행행동	.024	.041	.044	.571		
	대중매체영향	.021	.050	.028	.413		
	자녀급우관계	-.061	.057	-.087	-1.067		

\* $p<.05$ , \*\* $p<.01$ , \*\*\* $p<.001$

종합적으로 볼 때 학교폭력유발요인이 괴롭힘의 피해행동은 주로 같은 반 학생과의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미시체계(급우관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따라서 괴롭힘의 피해행동은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개선 프로그램과 또래 상담사 제도 도입 등의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 다.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아이디 도용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8>와 같이 폭력써클 가입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회귀 식에 유의한 모형이 아니므로 영향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이디 도용 피해행동을 당하는 학생보다는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lt;표6-18&gt; 폭력 유발요인이 아이디도용(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R <sup>2</sup> )	F(p)
통제 변인	성별	.068	.146	.032	.463	.107 (.032)	1.416 (.111)
	학교유형	-.035	.140	-.016	-.246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52	.061	-.059	-.858		
	열등감과우울	-.073	.073	-.072	-.997		
	우월의식	.040	.071	.039	.562		
	화를잘냄	.081	.067	.087	1.201		
	잘난척성향	-.040	.076	-.036	-.527		
	성별편견	.005	.064	.005	.079		
	한 부모가족	-.307	.190	-.105	-1.617		
아이 디 도용	경제수준	-.050	.090	-.041	-.554		
	가정만족도	-.058	.077	-.064	-.748		
	학교만족도	.073	.076	.073	.960		
	자녀에무관심	.178	.092	.184	1.938		
	급우관계	.164	.095	.144	1.727		
	교사관계	.077	.097	.076	.794		
	부부싸움	-.113	.069	-.127	-1.641		
	폭력써클가입	-.220	.103	-.222	-2.139*		
	부모교사관계	-.088	.073	-.098	-1.211		
	비행행동	.015	.056	.021	.265		
중간 체계	대중매체영향	-.050	.068	-.052	-.741		
	자녀급우관계	-.004	.076	-.005	-.057		

\*p&lt;.05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시판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19>와 유의한 영향요인이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폭력 피해행동을 당하는 학생보다는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lt;표6-19&gt;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시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인터넷 게시판 폭력	통제 변인						
	성별	.063	.118	.038	.533		
	학교유형	.117	.113	.069	1.038		
	공부를 못하는 경향	-.042	.049	-.060	-.859		
	개인 체계	열등감과 우울	-.030	.059	-.038		
		우월의식	.064	.057	.079		
		화를 잘냄	-.019	.054	-.026		
		잘난척성향	.048	.061	.055		
		성별편견	.011	.052	.015		
	미시 체계	한 부모가족	-.112	.153	-.048		
		경제수준	-.111	.072	-.114	.082	1.048
		가정만족도	.024	.062	.034	(.004)	(.406)
		학교만족도	.098	.061	.124		
		자녀에 무관심	-.040	.074	-.052		
		급우관계	.097	.076	.107		
		교사관계	.047	.078	.058		
		부부싸움	-.005	.055	-.008		
		폭력써클가입	-.040	.083	-.051		
		부모교사관계	-.069	.059	-.097		
	중간 체계	비행행동	-.058	.045	-.103		
		대중매체영향	.092	.055	.119		
		자녀급우관계	-.027	.062	-.038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20>와 같이 통제변인에서는 성별이  $\beta = .170(p < .05)$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인에서 미시체계의 가정만족도와 부부싸움이 각각  $\beta = .176(p < .05)$ ,  $\beta = -.166(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5.7%( $R^2 = .157$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 = 2.196(p < .001)$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피해가 많으며 가정 만족도가 낮고 부부싸움이 오히려 적은 학생일수록 인터넷 게임에서 사기 피해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사기 피해학생들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미시체계(가정만족도)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따라서 남학생이 사이버사기피해경험수가 많은 만큼 남학생의 학교폭력 방식 개선하기 위한 교사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만족도 및 가정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표6-20>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316	.126	.170	2.511*	.157 (.086)	2.196 *** (.002)
	학교유형	-.043	.121	-.023	-.355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29	.052	.037	.560		
	열등감과우울	.033	.063	.037	.525		
	우월의식	.065	.061	.072	1.064		
	화를잘냄	-.005	.058	-.007	-.094		
	잘난척성향	.027	.065	.027	.416		
	성별편견	.039	.055	.046	.713		
	한 부모가족	-.093	.163	-.036	-.568		
인터넷 게임 사기	경제수준	.046	.078	.043	.599		
	가정만족도	.140	.066	.176	2.114*		
	학교만족도	-.097	.065	-.110	-1.496		
	자녀에무관심	-.001	.079	-.001	-.015		
	급우관계	.062	.082	.061	.757		
	교사관계	.120	.083	.133	1.437		
	부부싸움	-.130	.059	-.166	-2.205*		
중간 체계	폭력써클가입	.135	.088	.154	1.531		
	부모교사관계	-.074	.063	-.093	-1.185		
	비행행동	-.006	.048	-.010	-.125		
	대중매체영향	.108	.058	.126	1.844		
	자녀급우관계	-.129	.066	-.159	-1.962		

\* $p < .05$ , \*\*\* $p < .001$

다음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인터넷 게임 관련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21>와 같이 통제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립변인에서 미시체계의 급우관계가  $\beta=.213(p<.05)$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 개인체계의 성별편견  $\beta=.192(p<.01)$ , 한 부모가족  $\beta=-.141(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은 14.3%( $R^2=.143$ )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 모형 식에도  $F=1.964(p<.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우관계가 좋지 않고, 학교폭력의 가해는 남학생이 많다는 성별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에서 사기 피해행동이 많아지며, 한 부모가족보다는 오히려 한 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에 사기피해행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 사기 피해 학생은 학생의 발달적 특성으로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진 학생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상담을 이용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예방 및 감소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에 사기피해를 많이 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lt;표6-21&gt; 폭력 유발요인이 인터넷게임 관련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013	.099	-.009	-.129	.143 (.070)	1.964** (.008)
	학교유형	-.102	.095	-.069	-1.069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35	.041	.057	.851		
	열등감과우울	-.019	.049	-.027	-.380		
	우월의식	.003	.048	.004	.056		
	화를잘냄	.006	.046	.010	.136		
	잘난척성향	-.063	.051	-.081	-1.219		
	성별편견	.127	.044	.192	2.923**		
	한 부모가족	-.284	.129	-.141	-2.209*		
인터넷 게임 폭력	경제수준	-.002	.061	-.003	-.038		
	가정만족도	-.032	.052	-.052	-.615		
	학교만족도	-.098	.051	-.143	-1.921		
	자녀에무관심	-.048	.062	-.072	-.780		
	급우관계	.168	.064	.213	2.603*		
	교사관계	.081	.066	.116	1.240		
	부부싸움	-.032	.047	-.052	-.684		
	폭력써클가입	.054	.070	.078	.771		
	부모교사관계	-.063	.050	-.101	-1.280		
	비행행동	.032	.038	.065	.850		
중간 체계	대중매체영향	.018	.046	.027	.392		
	자녀급우관계	.020	.052	.031	.378		

\* $p < .05$ , \*\* $p < .01$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사이버 폭력 중 휴대폰 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6-22>와 같이 통제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립변인에서도 부부싸움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F=.817$ ,  $p>.05$ ) 유의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폭력 피해행동을 당하는 학생보다는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lt;표6-22&gt; 폭력 유발요인이 휴대폰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B	SE	$\beta$	t	$R^2$ (adj $R^2$ )	F(p)
통제 변인	성별	-.118	.157	-.054	-.754	.065 (-.015)	.817 (.698)
	학교유형	.235	.150	.105	1.560		
개인 체계	공부를 못하는 경향	-.038	.065	-.041	-.582		
	열등감과 우울	.049	.078	.046	.623		
	우월의식	-.071	.076	-.067	-.938		
	화를 잘냄	-.024	.072	-.025	-.337		
	잘난척성향	-.028	.081	-.024	-.348		
	성별편견	-.011	.069	-.011	-.159		
	한 부모가족	.190	.203	.062	.936		
휴대 폰 폭력	경제수준	-.063	.097	-.049	-.651		
	가정만족도	-.002	.083	-.002	-.024		
	학교만족도	-.004	.081	-.003	-.043		
	자녀에 무관심	.024	.098	.024	.245		
	급우관계	.103	.102	.086	1.011		
	교사관계	-.009	.104	-.008	-.083		
	부부싸움	.151	.074	.163	2.056*		
	폭력써클가입	-.184	.110	-.177	-1.668		
	부모교사관계	-.012	.078	-.012	-.148		
	비행행동	.103	.060	.138	1.719		
중간 체계	대중매체영향	.021	.073	.020	.283		
	자녀급우관계	-.060	.082	-.063	-.733		

\*p&lt;.05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유발요인이 사이버 상에서 폭력의 피해행동에서는 특별히 여러 피해행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고, 급우관계와 가정의 특징이 약간씩 사이버에서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에서 급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성별, 낮은 경제수준, 폭력써클 미가입, 가정만족도,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 부부싸움, 성별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학교 및 사이버 상에서 피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접근법은 개인체계(성별

편견),미시체계(경제수준, 가정만족도, 부부싸움, 한 부모가족), 중간체계(폭력써클 가입)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행동은 학생의 생활과 문화와 관련이 높고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학교의 노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상의 폭력피해가 가정생활 측면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연구하였다.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서울소재 인문계 고등학교1학년 학생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11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피해 및 가해유형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피해 및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 814명을 제외한 286명이 최종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생태학적 분류에 따라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로 제한함으로써 생태학적 유발 요인 중 외 체계는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제도가 일치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거시체계는 학생 개인 및 다른 체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 분류로 본 연구는 연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와 환경을 미치는 거시체계 또한 제외시켰다. 학교폭력 유형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협박의 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 폭력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유형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학교폭력 유발요인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유발수준이 학교폭력 유발요인



으로는 개인체계 2.74점으로 속성의 성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 미시체계 2.36점, 중간체계 2.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유형의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경험수준은 조사대상자는 피해경험(1.48점)보다 가해경험(1.66점)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유형에서는 공학고가 아닌 학교의 학생이 1.82점으로 남녀공학의 학생의 1.56점 보다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864$ ,  $p<.01$ ).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1.91점으로 가장 높고 중 1.54점 상 1.71점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381$ ,  $p<.01$ ). 가정생활만족도에서도 불만족집단이 2.04점으로 가해경험이 가장 많고 만족집단이 1.47점으로 가해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 수준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F=15.542$ ,  $p<.001$ ).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성적이 낮은 집단이 1.82점으로 가장 많은 가해경험이 많았고 성적이 중, 상 집단은 1.54점 1.49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7.390$ ,  $p<.01$ ).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가해경험과 같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1.988$ ,  $p<.05$ ), 한 부모 가족의 유형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학생이 가해경험이 많은 결과에 상응하는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의 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119$ ,  $p<.01$ ).

셋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유발요인인 개인체계와 학교폭력 가해경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게임사기와 게임 관련 폭력 가해행동을 제외한 모든 가해행동은 개인체계의 우월의식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인터넷 게임사기와 게임 관련 폭력 가해행동은 공부를 못하는 경향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의 폭력유발요인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좋지 않은 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 좋지 않

은 급우관계, 가정만족도, 부부싸움, 학교만족도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간체계의 폭력유발요인은 사이버 상에서 아이디도용을 제외한 모든 가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폭력써클 가입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 비행행동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와 교사의 무관심 관계, 대중매체의 폭력적 영향, 자녀급우관계의 무관심등이 비슷한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체계의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피해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타와 강제심부름,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와 폭력은 성별에 대한 편견이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놀림이나 따돌림행동은 개인의 열등감과 우울성향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시체계의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협박, 구타, 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의 피해행동은 좋지 않은 급우관계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폭력 피해행동에서는 아이디도용 피해는 한 부모가족, 인터넷 게시판 피해폭력은 경제수준과 부(-)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게임관련 사기피해는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 게임관련 폭력피해는 급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 휴대폰 폭력피해는 잦은 부부싸움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간체계의 폭력유발요인과 피해행동의 상관관계에서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놀림,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중 금품갈취 피해는 폭력써클가입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강제심부름과 게임관련 사기피해는 폭력써클가입과 상관관계, 놀림은 비행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가해 및 피해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변인을 통제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폭력써클가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학생과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와 대중매체 영향, 개인적 성향 중 공부를 못하는 경향, 우월의식 등이 주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낮은 가정만족도,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 열등감과 우울

등의 요인이 학교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버 상에서 폭력행동 중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요인은 폭력써클 가입여부보다는 부모와 교사의 관계와 성적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에서 급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성별, 낮은 경제수준, 폭력써클 미 가입, 가정만족도,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 부부싸움, 성별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학교 및 사이버 상에서 피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학교폭력 유형의 영향력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발생시 학교폭력 유형별로 유발요인을 알 수 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해경험이 좀 더 많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공학교가 아닌 학교의 학생이 남녀공학의 학생보다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영(2007, p.302)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유발수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폭력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 부모 가족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좀 더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한 부모가정·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이 학교폭력에 많이 관련이 되었다는 기존 연구(유리향, 2012; 윤영준, 2011; 이진숙, 2010)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교폭력 유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한 연구(곽영길, 2007; 김병찬, 2012; 정현주, 2011)와 일치한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학교성적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이 가해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와 학업흥미가 낮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나타난 연구결과(박효정·정미경·김효원,

2009, p.34)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차이는 한 부모 가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리그비(Rigby)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의 학생이 가해경험이 많은 결과에 상응하여 한 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의 학생이 피해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정현주, 2011). 즉 학교폭력은 학업 성적과 가정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유발에는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의 한 요인만이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학교생활·제도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한 부모 가족처럼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담지원, 멘토 등을 제도화하여 자녀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 유형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먼저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중간체계의 폭력써클가입이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가해행동 중 협박행동이 폭력써클가입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미시체계의 좋지 않은 급우관계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피해행동 중 강제심부름 피해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박주형·정성수(2012, p.15)연구에서 학생의 개인적·가정적 배경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생 교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애플데이와 같은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또래상담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유발요인이 학교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물리적·신체적 폭력 행동(금품갈취, 협박, 구타)을 하는 학생은 개인체계(개인의 우월의식, 공부 못하는 경향)·미시체계(부정적인 학생과 교사 관계)·중간체계(폭력써클가입, 비행행동)의 영향력이 높았다. 즉 학생의 개인적 발달 특성인 우월의식이 높을수록·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폭력 써클가입 행동과 비행행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 이는 학교폭력행위로 볼 수 있는 돈·물건 빼기, 신체 상해 행위는 주요과목 이해도가 낮을수록·남자가 폭력행

등을 많이 한다는 성별에 대한 인식·교사가 열정적이지 않을수록·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주형·정성수, 2012, p.9-10)와 비슷하다.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교우들 간 역할극하기, 또래상담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보조교사 확충, 학생 자치를 통한 학교규칙 설립하기 등을 실천한다면 개인의 우월의식·교사와의 관계·학교규칙에 대한 인식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은 개인의 발달 특성·가정생활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풍토와 학교문화가 많이 관련되어있으므로 학교문화 개선만으로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은 주로 같은 반 학생과의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이버 상에서 폭력의 피해학생에게 특별히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다. 따라서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또래상담제도 와 프로그램 개발 등 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예방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행위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학교폭력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체계·미시체계·중간체계의 요인들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각종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학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 아래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학생들의 가족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은희 (200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 분석: 자기에  
성향, 지 배성, 사회 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 전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석 (2006).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에 관한연구. 한  
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길 (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  
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권이중 (1995). 청소년과 교육 병리. 서울 : 양서원.
- (1998). 한국사회의 폭력실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 김경집 (2005).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 연구,  
16(1), 421-448
- 김규태 외 (2013). 학교폭력의예방 및 대책. 파주: 양서원.
- 김규태 (2013).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차이. 중등교육연구, 61(1), 29-57
- 김미영 (2007). 학교체제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287-314.
- 김범수 (2009). 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생태체계변인에관한연구: 중간체계변  
인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6(1), 15-44.
- 김병찬 (2012). 학교폭력문제해결에있어교원의역할과책임에관한소고. 한국교원교육  
연구, 29(3), 19-47.
- 김선애 (200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과학학지,  
12(3), 1-15.
- 김선형 (2005). 학교폭력예방에대한교사학생인식에관한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승재 (1990). 사회사업실천에있어서생태체계적관점의사정도구에관한연구. 서울대  
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옥렬 (200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  
동복지학, 26(1), 70-91.

김장대 (1998).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기 (1998). 학교폭력의 대책과 실천방안.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종일 (2004). 사회문제론, 서울 : 청목출판사.

김준호·이선애 (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31(1),  
81-105.

----- (2003a). 청소년 비행론, 서울 : 청목출판사.

----- (2003b).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14(2), 5-47.

김준호 (1997). 청소년 폭력-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 (2003).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화 (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김창호 (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현수·김대유 (2003). 학교폭력 우리아이 지키기. 서울 : 노벨과개미.

도기봉 (2007a). 고등학생의학교폭력유형별가해실태에관한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3(3), 171-192.

----- (2007b).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생태체계요인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2), 73-92.

문수경 (2004). 청소년부모자녀관계에영향을미치는생태체계변인:부모자녀를대상으



- 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문용린· 이승수 (2010). 학교폭력현황과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숙 (1999).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 일본동경대학 T.Takuman교수 초청 한일 학술대회 발표자료(pp.21-26) 서울: 경희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박동호 (2011). 창원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금 (2006). 청소년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명숙 (1999). 생태체계이론에 대한 이해와 사회사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4(1), 127-137.
- (2000).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생태 체계적 관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5(1), 95-111.
- 박성수 (1977).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형· 정성수 (2012).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 연구, 30(3), 1-19.
- 박창득 (2003). 초등학교 학교 현상에 관한 교사 학생의 인식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 정미경· 김효원 (2009). 학교폭력지표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 36(3), 27-51.
- 석말숙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 지역사회거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6(1), 237-261.
- 손덕순· 이홍직 (2006).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생태체계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31(1), 181-205.
- 신성옥 (2001). 학교폭력의실태와폭력예방에관한연구:김제시지역을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광복 (2012. 3). 학교폭력의 진짜 해결책은 철학이다. 철학과현실, 72-78.
- 염영미 (2012).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명상활용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혜선 (2007). 청소년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검증 : 남녀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원명희 (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리향 (2012). 어머니 양육행동과 초등학생의 괴롭힘 간 관계: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육홍렬 (2005).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아 (2001).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영준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과 도덕성의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과 도덕성의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9). 21세기의 사회학. 서울 : 학지사.
- 이금주 (2002). 학교폭력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문자 (2003).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 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희 (1998). 청소년 폭력 대책 모델 개발.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선영 (2004).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운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
- 이은경 (2011). 개인과 가족차원의 보호요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의 적응도 변화 경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3).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해 경험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 (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지, 17(4), 563-574.
- 이진숙 (2010).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상 (2007). 형법총론. 서울 : 박영사.
- 이정원 (2012). 형법각론. 서울 : 신론사.
- 이춘재·곽금주 (1999).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 장맹배 (2011).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윤지 (2005). 학교폭력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쉼터 거주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5(12), 255-281.
- 정현주 (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과정간 관계와 예측요인.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춘범 (2005). 청소년의 가정 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은희 (2002).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4). 청소년폭력실태조사.
-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소 (1996).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분석-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 한상철 (1987).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한재원 (2011). 사회 복지 실천론. 서울:형지사.
- 홍정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홍현주 (2005). 내 아이의 생존전략서(왕따는 안 돼). 서울 : 무공해생활.

Bronfenbrenner(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학교폭력유발요인과 학교폭력유형의 영향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학교폭력 관련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김희선  
이메일:lupelly@ewhaim.net

문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문2.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해당 학년 표시해 주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	2	3
인문 고등학교	1	2	3
실업 고등학교	1	2	3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것에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났다고 생각하고 우울함을 자주 느낀다.(열등감과 우울성향)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신이 신체적으로 강하고 힘도 더 세다고 생각한다. (우월의식)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다. (화를 잘내는 성향)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로 잘난척하는 학생이다.(잘난척하는 성향)	①	②	③	④	⑤
5. 학교폭행의 가해자는 남자가 많다.(성별에 대한 편견)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자녀에 대한 무관심)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보통 같은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급우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보통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다.(교사관계)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부모님은 자주 싸우는 편이다.(부부싸움)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진이나 폭력서클에 가입되어 있다. (가해학생의 폭력서클가입)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부모님은 담임교사와의 대화가 부족하다. (부모와 교사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보통 술, 담배, 오토바이 훔치기, 폭주 뛰기, 가출 등 비행과 관련된 행동을 한 적 있다.(학생의 비행관련성)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폭력적인 TV 프로그램,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대중매체영향)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모르는 경우가 많다.(자녀급우관계)					
---------------------	--	--	--	--	--

학년동안(올해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안과 근처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일주 일 1회	일주일 2회	일주일 3회 이상
1.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서운 말투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서운 말투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흥기의 위협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않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흥기의 위협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않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매점가기 등의 심부름을 억지로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10. 매점가기 등의 심부름을 억지로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위협을 해서 숙제를 강제로 시켰다 .	①	②	③	④	⑤
12. 위협에 못이겨 숙제를 강제로 해주었다 .	①	②	③	④	⑤
13. 시험볼때 위협에 못이겨 답안지를 억지로 보여줬다.	①	②	③	④	⑤
14. 시험볼 때 위협으로 답안지를 억지로 보여주게	①	②	③	④	⑤

했다.					
15. 성격이나 성적, 집 형편, 신체적 특징으로 심하게 놀린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격이나 성적, 집 형편,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심하게 놀림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묻는 말에 무시, 놀거나 점심 먹는데 끼워주지 않기 등 오랫동안 (한달 동안) 고의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묻는 말에 무시, 놀거나 점심 먹는데 끼워주지 않기 등 오랫동안 (한달 동안)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b>19.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이용했다.</b>	①	②	③	④	⑤
20. 누군가의 나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이용하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모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3. 리니지, 디아블로, 써든어택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금전적 속임수를 썼던 적이 있다</b>	①	②	③	④	⑤
<b>24. 리니지, 디아블로, 써든어택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금전적 속임수를 당한 적이 있다.</b>	①	②	③	④	⑤
25. 리니지, 디아블로, 써든어택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협박이나 폭행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리니지, 디아블로, 써든어택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7. 휴대폰음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8. 휴대폰음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



## ABSTRACT

### The Effects of the Correlations between School Violence Types and Factors Leading School Violence

Kim Hee Su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types and factors leading school violence based on a physiologist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ory.

Many studies on school violence correlate the violence to the microsystem, the mesosystem or the macrosystem, which indicate superior attitude, peer groups, teacher-student relations, homes, school gangs, delinquents, academic achievement, media's impact, even comradeship.

This survey used the 5-point Likert scale to administrate 1100 students who ar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investigated exclusive of the macrosystem as well as the exosystem in that two specific reasons. One reason is that the subjects conducted the questionnaire are surrounded in the sam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other is that the exosystem is not related as an influence factor on the topic directly.

The main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s were average comparison by variance analysis and Duncan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sis showed in the two prospective, aggressor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Of these, the former committed the violence resulted in the factors such as physical violence affected by the individuals system (e.g., superior attitude), the microsystem(e.g., teacher-student relations), or the mesosystem(e.g., school gangs, delinquents). Moreover, harassment resulted from the individuals system (e.g., academic achievement) or the meso system(e.g., school gangs). Besides, cyber-bullying was attributed to the individuals system (e.g., academic achievement), the microsystem(e.g., comradeship), or the mesosystem(e.g., school gangs, media's impact).

The latter ones committed the violence resulted in the factors such as physical violence affected by micro system(e.g., comradeship). Also, harassment resulted from micro system(e.g., comradeship). But, cyber-bullying was ascertained that this factor had an impact on the violence significantly.

Since this study has conducted in a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questionnaire, it did not have a consideration on a particular situation which each student might confront peculiar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consider the topic in this study from different many other angles through in-depth discussions in qualitative research in a follow-up study.